교육학碩士學位請求論文

고등학교 현대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ssues in Poetry Education of High School and the Improvement Method

-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
- Focusing on the High School『Literature』Textbooks-

2008年 2月

仁荷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斗 山
教育学硕士学位請求論文

고등학교 현대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ssues in Poetry Education of High School and the Improvement Method

-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
- Focusing on the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2008年 2月
指導教授 洪廷善

이論文을硕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仁荷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斗山
본 논문을 金斗山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08年 2月

主審

副審

副審
목  차

《국문 초록》

I. 서 론 ........................................................................................................ 1
  1. 문학 교과서의 성격과 시교육의 목표 ............................................. 1
  2. 시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7
  3. 연구 방법 및 범위 ..................................................................... 10

II.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제 ................................................................. 12
  1. 제 7차 문학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 ................................ 12
  2. 문학 교과서 수록시의 문제점 ....................................................... 14
     1) 문학교육과 작품물 선정의 문제 ................................................. 15
     2)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문제점 고찰 ............................ 21
  3. 시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 30

III. 시 교육의 효율적 개선 방향 ............................................................ 38
  1. 시교육의 바람직한 제재 선정 방안 .............................................. 38
  2. 학습자 중심의 시교육 ................................................................. 50
     1) 학습자 중심 시교육의 수용론적 접근 ........................................... 51
     2) 학습자 중심 시교육 방안 .......................................................... 53

IV. 결 론 .................................................................................................... 70
참고문헌 ........................................................................................................ 74

ABSTRACT ....................................................................................................... 77

부록1. 문학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

부록2. 제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실린 현대시 목록
시 교육의 목표는 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시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으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작품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다.
오늘의 문학 교육 이론은 텍스트 분석 위주에서 학습자들의 수용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나 현재까지 시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일방적인 텍스트 분석과 내용 전달 중심의 방법으로 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 입시’라는 미명하에 참고서에 의한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 학습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 또한 개인의 연구 차원에 따라 억지 해석 및 평가나 시인의 정신을 무리하게 한정 시키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교육의 실제’를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문학』교과서 수록시의 문제점과 시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서론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 및 국어과 교육목표와 문학 교과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교육의 목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형연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서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제’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문학』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과 문학교과서 수록시의 문제점, 그리고 시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문학』교과서의 수록된 작품 선정에 있어 적절한지 고찰해 보고, 수록된 시작품들과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 작품을 예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시교육의 효율적 개선 방향’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살펴보았다. 이는 시 교육의 바람직한 제재 선정 방안과 학습자 중심의 바람직한 시교육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끝으로 바람직한 고등학교『문학』교과서의 올바른 시교육에 대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를 하였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라는 교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시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작품 선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역할은 시의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해석의 방법을 학생 스스로가 발견해 낼 수 있는 주체적인 시각법이 되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현『문학』 교과서의 시 작품들이 모든 교사와 학습자의 기대에 충족되도록 구성되어 수록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고등학교 현대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과서의 편찬과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이 함께 용화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1. 문학교과서의 성격과 시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문학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삶의 총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학 장르 중에서 시는 정서와 사상이 주가 되어 감동을 주며 운율적 언어와 내포적 언어를 통한 대표적 언어예술이다. 또한, 압축되고 집중적인 형태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인생을 표현하고 생명을 해석하는 문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는 교육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학으로서의 위상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에게 가지는 의미는 가장 크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가치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위한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발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950년대 도입한 신비평은 50년대와 60년대 문학연구와 실천 비평의 현장에서 뿐 아니라 우리 문학 교육의 현장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비평적 관점에서의 문학을 구성하는 언어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자질이 작품 자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신비평적 문학 교육은
지나친 분석주의로 흐른 나머지 고정관념에 빠지거나 문학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 왔다.1) 또한, 교사가 가르치기
에 부담이 되며 난해하여 문학 교육의 하위요소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제 6차 교육과정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수동적 독자였던 학생을 능
동적인 독자의 형식을 갖추고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문학 교육 이론은 텍스트 분석 위주에서 학습자들의
수용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
나, 실제 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일방적인 텍스트 분석과내
용 전달 중심의 압기 위주의 방법으로 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 교육 역시 대입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에 초점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대학 입시’ 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참고서에 의해 기계
적, 분석적으로 참된 시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은
위한 현실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접근, 특히 정서적 접근
을 막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미래적 안목에서 볼 때 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습자도 평가에서 보편성과 객관
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를 감상하고 느끼기보다는 ‘지식 중
심’의 감상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시의 본질’ 이 무엇
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 교육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시의 인문학적 본질’ 이 무엇이며 학습자가 생각하는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험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
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시 되는 ‘시의 본질’ 이란 무엇일까?

시는 언어의 자유적인 구조체로서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주관적이며

1)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국어교육연구총서 18,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상상력이 왕성한 장르이다. 그 독특한 언어사용은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 또한 시 작품은 정신적인 가치로서 체험의 심미적 기록이며, 이러한 점에서 시는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가치 있는 문제를 담고 있어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늘날처럼 치열한 입시 경쟁과 정보 매체의 홍수 속에서 위협 당하며 자기를 잃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시 작품 읽기는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며 특히 성인이 되기 전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 시적 체험을 통한 감수성의 계발은 건전한 사고와 사회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시 교육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학 작품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지도교사의 교수 - 학습 과정에서 시를 음미하기 보다는 시험문제를 푸는 듯한 형태로 진행되어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가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제 6차 교육과정이 학교․급 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던 데 비해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1학년부터 10학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고교 2, 3학년에 일반 선택과 신화 선택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한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의 능력, 흥미, 장래, 진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였다.
셋째, 학생의 학습 능력․향성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할 내용을 제
공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과목 교육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기른

2) 위의 책, p. 303.
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위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기초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들었는데 이는 잘 계획되고 조직된 문학 경험이 문학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지식 · 수행 능력 · 태도 ·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가’항에서 말하는 ‘문학 활동’이라는 말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목표’의 제시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전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용어 대신 ‘수용과 창작’이라는 용어를 쓴 점이다. ‘수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언어와 정의를 함께 아우르면서 동시에 수용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수용 - 창작’이라고 한 것은 ‘이해 - 표현’이라는 언어활동의 기본 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상으로 앞에서 살펴 본 문학 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시 교육의 목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고등학교 시 교육에 있어서는 발달 단계에 맞게 제조직된 모습을 통하여 습득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으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이는 고등학교 시 교육 과정의 실제적 내용의 대부분과 관련되는 목표로서, ‘교수 - 학습’ 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창작 활

3) 여기에서 언급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란 시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문학이론으로 운율, 말하는 이, 시간, 공간, 심상, 비유, 상징, 반어, 역설, 어조, 분위기, 주제 등을 일컫는다.
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문학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 개발의 증진을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시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에 대한 홍미가 있어야 한다. 즉 시의 참맛을 느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즐거움을 얻으면서 스스로 시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시 교육 목표가 의도하는 바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의 원리들과 교수-학습 원리들이 유기적으로 조합,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문학 교육을 풍부하고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통해서 미적 인식력과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시 교육은 학습자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여 작품 세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 교육에 있어 일원적 해석 방법을 벗어나 다원적 해석 방법 방향으로 나아가며, 작품을 폭 넓게 감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음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시·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의 어구와 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넓은 이해가 아닌, 분석 위주의 수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시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서에 의존해 분석되고 실정이다. 이는 대입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참된 시 교육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접근 및 이해를 막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제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점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루기에 앞서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변모도 간략히 살펴 보겠다. 그리고 문학 교과서의 제재 선정의 문제와 교과서·교사용 지도서의 문제점, 교
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각각 제시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시 교육의 바람직한 제재 선정 방안과 함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라는 교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시 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시 해석의 방법을 학생 스스로가 발견해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2. 시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시 교육에 관한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편과정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분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 교육에 관한 기원의 연구는 시 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나 교과서의 시 작품에 대한 실제 지도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 문학교육의 실태를 들고 그에 따른 개선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 교육의 문제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저서나 논문을 위주로 중요한 것들만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옥은 우리 문학 교육에 대해 빈약한 문학 교재로 상정, 심상, 모호성 등의 난해한 개념을 사용하여 시를 분석한 후 객관적 시험을 가능하
게 하였다고 역설하였다. 4) 또한 최시한은 시 교육의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군이 신비평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문학 교육의 방법에서 찾고 있는데, 문학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사 중심으로 암기 위주로 가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의 내용과 단계, 방법 등을 구조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5) 라고 하였다.

윤영천과 같은 연구자는 우리 문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신비평의 방법론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한 작품해독’ (close reading) 이 자습서·참고서·문제집 등에 그대로 연결되지 않고 비평적 독서와는 전혀 무관한 ‘엽치기 분석’ 또는 가치 ‘남도질’ 이라 불리 마당한 그것된 작품 해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또한, 문학교육이 역사주의적 비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당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서정주의 작품이 제 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 교과서에서 완전 사라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6) 또한, 손진은도 미당 서정주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에 있어서 작품 선정의 문제점을 다루었는데 서정주의 전이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 전이의 사실이 서정주의 전 시작과정이나 전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작품에 하다의 이태로로기로 작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7) 이처럼 혼란한 시인인 미당 서정주의 문학 작품을 토대로 문학교육에 대해 비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비단 고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중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다. 대부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8) 이는 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

4) 이상옥, 「문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대비평과 이론」 별호, 1992. p. 112.
5) 최시한, 「고등학교의 문학 교육」, 「현대비평과 이론」 제 9호, 1995. p. 43.
6) 윤영천, 「서정적 전설과 시의 험」, 창작과 비평사, 2002.
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시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이나 바람직한 방향 제시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시 교육의 문제점은 학습자에게 시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시의 내용이나 형식을 분석하기만 하는 것,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고 교과서에 의한 전편일률적 정답만을 주입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과 그에 따른 모형과 함께 구체적인 시 학습 지도 방법을 제시하거나 반응 중심 수업 모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를 학습 활동 문항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바람직한 학습활동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김인환은 학습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 시 교육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감상 중심의 수업과 학습자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습자들에게 시를 체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제학은 시 교육의 의의가 상상력 계발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력의 환기, 추정, 확장 단계에 따른 적도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시 수업의 단계를 ‘전체적 접근 - 부분적 접근 - 종합 감상’으로 세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결책으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하지 않은 원론적인 것이 많아 실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학 교과서 수록시의 문제점과 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들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제제 선정 방안

8) 박대홍,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9) 김중신, 『문학교육 패러다임 점검과 전망』, 『문학교육학』가을, 1997. p. 89.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특징 및 이에 따른 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고, 제7차 문학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문학교과서에 선정, 수록됨에 있어 부적절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시의 본질과 특성에 초점을 두어 객관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주축인 교과서와 참고서인 교사용 지도서의 해설과 설명에 있어서 시의 정신이나 시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지 등을 고찰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진술될 내용의 구체적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및 국어과 교육목표와 문학 교과서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 교육의 목표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둘째, 제Ⅱ장에서는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제로, 문학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 및 특징과 문학교과서 수록시의 문제점, 그리고 시 교육 학습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보겠다. 여기서 문학 교과서 수록 시는 7차 교육과정 고등 문학 교과서에 실린 현대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제 Ⅲ 장에서는 시 교육의 효율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는 시 교육의 바람직한 제재 선정 방안과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안에 대하여 현재 문학 교과서에 실린 시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 학습 모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 제 Ⅳ장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13) 1. 교학사,『문학』상·하, 김대행 외 6인, 2003.
2. 금성출판사,『문학』상·하, 박경선 외 3인, 2003.
5. 다담출,『문학』상·하, 김용식 외 4인, 2003.
7. 민중서림,『문학』상·하, 김장균 외 3인, 2003.
8. 블랙박스,『문학』상·하, 한계진 외 4인, 2003.
11. 천재교육,『문학』상·하, 홍신선 외 2인, 2003.
Ⅱ.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제

1. 제 7차 문학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

교수 - 학습 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재를 매개체로 전행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을 원활하게 해 주는 교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문학교육의 교재는 문학현상의 구체적인 체험을 제공하며 독자의 이해와 수용을 통하여 작품으로 구체화되고 다른 작품을 읽는 스키마를 형성시켜 준다.

시 교육의 현장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진 교육의 재제이다. 교사가 다양한 시 수업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인 자료는 교과서 수록 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에 시가 잘못 선정되었을 때에는 교수 - 학습의 기본축이 제구실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교재인 ‘교과서’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편찬된 교과서일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이다.

교수 - 학습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만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문학 교과서 별로 기본방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 문학교과서 수록 시의 문제점과 시교육 현

장에서의 문제점들을 각각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현재 학교 현장에 보급된 18종의 문학 교과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1차 검정을 통과한 것은 11종이며,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총 22권이다. 이러한 문학 교과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성을 구현하였으며, 학생 중심, 과정(활동) 중심의 교과서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편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은 fundamentally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점은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법교육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교과서, 문학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하고, 미래 지향적인 문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과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평가까지 생각한 교과서,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교과서’이다. 이와 같이 제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만들어진 문학 교과서는 그 동안의 국문학의 학문적 업적과 문학교육에 관한 꾸준한 연구로 이루어진 성과들이 중심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 7차 문학 교과서가 기존의 제 6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비해 어떤 보완점과 성과를 가지는지 간략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제 7차 교과서는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의 시 작품까지도 수록하였다.

둘째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는 월북 작가 및 좌파 문인의 작품 또한 다수 수록되었다. 제 7차 문학 교과서에서는 그동안 왜곡되었던 좌파 문인의 작품을 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
원에서 이전보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처럼 이 전 교과서에서선 실리지 못했거나 극히 일부의 교과서에만 소개되었던 작품들이 제 7차 문학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었다. 이는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의 작품들 중에서 집필자들에 의해서 문학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 수록된 것이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좌파 문인의 작품이 다소 수록되었음은 물론이고 현실 참여적인 민중 문학 작품도 대거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지만 7차 문학 교과서에는 작품 선정 및 작품 편중, 그리고 교과서 및 교 사용 지도서의 문제점 등 적잖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제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긍정적 변화도 간략히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작품 선정에 있어 부적절성과 함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문학 교과서 수록 시의 문제점

문학 교육은 수많은 문학작품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특히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검 인정 교과서로 학교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교육과정 편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는 교과서 편찬자의 주관적인 재정 선정이다. 문학 교과서에 수
록해야 할 작품 선정 기준을 따로 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문학 교육은 제재의 수용을 통하여 학습자인 학생의 지식과 경험을 제구성하고 그것 을 학습자가 갖는 삶의 장면에서 구체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와 관련한 태도를 기르게 한다.16)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들이 배우기에도 적절해야 한다. 제재 선정에 있어 제 6차 교과서에서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은 문학사의 평가를 받은 것들로 한다.” 에 의거하여 현대 문학 작품의 경우 대략 1970년까지로 제한하여 작품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는 시기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의 작품까지 수록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실제 경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학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얻지 못한 작품을 너무 성급하게 다루고 있다는 우려도 날게 되었다.

둘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관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시 교육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가 되는 학습자들에게 시인이 담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정밀하게 전달하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의 본질이 곡해 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앞서 말한 작품 선정의 문제점과 수록 작품이 편중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문학교육과 시 작품 선정의 문제

문학 작품을 교재의 제재로 삼을 때는 그 작품이 이룩하는 문학성에 기준을 두고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17) 또한, 문학은 언어 예술이기에 예

술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작품들 가운데 집필자에 의해 구성된다. 교과서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이론’과 ‘실제’로 구성되며, 교과서 집필 과정 가운데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작품의 선정이다.


--- 내용의 선정

가.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과 목표, 문학교육의 취지를 충실히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나. 내용은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것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주제별, 장르별, 시대별, 한국·세계문학 등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라. 수록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문학적,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받은 것을 선정하고, 전작을 원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작품 전체 내용의 요약이나 주석을 붙인다.

마.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식·정보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창조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바. 외국 문학 작품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수업시수 기준으로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내용의 조직

가. 단위 배당 기준(8단위)에 알맞은 분량을 선정하여 창의적으로 조직한다.

나.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편찬하되 학습의 연관성, 연속성, 문학사적 관점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조직한다.

다. 국어 과목의 ‘문학’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심화학습이 이뤄지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라. 문학 과목의 특성을 살려 수용과 창작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며,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마. 교육과정의 ‘4. 교수 - 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 - 학습 과정이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한다.

모든 교과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은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
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교수-학습의 효율성과 각 교과서의 특징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와 품상'의 네 영역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하고, 이 네 영역에 포함된 각각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시 교육은 그에 따른 목적에 따라 교육의 제재로 사용할 시의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교육의 제재로 시 작품을 선정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학습되어야 할 내용의 적합성과 그 제재의 난이도인 즉 학습단계와의 관련성이 있다.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시 작품의 선정에 있어 현 교육현실은 교육적 제재로 선정된 시 작품과 이를 분석하는 이론 범주에 대한 원칙이 전적으로 교과서 편찬자가 마련한다. 곧 교과서 편찬자 관점에 따라서 특정한 시 제재가 선정이 되고 이론이 동원되어 작품이 설명되어 지는 것이다. 결국 학습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문학 교과서 단원 설정의 원칙에 있어서 전적으로 ‘교과서 편찬자의 문학 교육적인 안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자는 좀 더 거시적·수용적인 태도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전문적 영역 작품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학 교육에 있어 제재 선정은 앞서 제 6차 문학 교과서와 비교하여 제 7차 문학 교과서의 변모를 간략히 다룬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큰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제 7차 문학 교과서와 제 6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비해 어떤 보완점과 성과를 가져 왔는지 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는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의 시 작품까지도 수록하였는데 이는 제 7차 문학 교육과정에서 강조하
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서 학습 주체의 능동적인 학습 과정에 인지와 정의 및 실제적인 활동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상통한다. 이처럼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수록된 작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able>
<thead>
<tr>
<th>시인</th>
<th>제 목</th>
<th>시인</th>
<th>제 목</th>
</tr>
</thead>
<tbody>
<tr>
<td>나희덕</td>
<td>오분간</td>
<td>유하</td>
<td>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 동에 가야 한다</td>
</tr>
<tr>
<td>안도현</td>
<td>너에게 묻는다</td>
<td>”</td>
<td>생(生)</td>
</tr>
<tr>
<td>”</td>
<td>모닥불</td>
<td>김용택</td>
<td>삼진강</td>
</tr>
<tr>
<td>”</td>
<td>또 하나의 길</td>
<td>서정원</td>
<td>홀로서기</td>
</tr>
<tr>
<td>”</td>
<td>우리가 눈받이라면</td>
<td>기형도</td>
<td>엄마객정</td>
</tr>
<tr>
<td>”</td>
<td>사랑</td>
<td>”</td>
<td>거울편화1</td>
</tr>
<tr>
<td>”</td>
<td>연</td>
<td>”</td>
<td>심목계</td>
</tr>
<tr>
<td>”</td>
<td>연애편지</td>
<td>이승하</td>
<td>화가 몽크와 함께</td>
</tr>
<tr>
<td>”</td>
<td>연탄 한 장</td>
<td>”</td>
<td>이 사진 앞에서</td>
</tr>
<tr>
<td>구광본</td>
<td>강</td>
<td>도종환</td>
<td>혼들리며 피는 꽃</td>
</tr>
<tr>
<td>길상호</td>
<td>그 노인이 지은 집</td>
<td>”</td>
<td>우수수반 앞에 당신을 묻고</td>
</tr>
<tr>
<td>최영미</td>
<td>선운사에서</td>
<td>홍성란</td>
<td>황진이별곡</td>
</tr>
<tr>
<td>조애린</td>
<td>진이의 노래</td>
<td>신진호</td>
<td>이별이란</td>
</tr>
<tr>
<td>장정일</td>
<td>하숙</td>
<td>김유선</td>
<td>김광섭 시인에게</td>
</tr>
<tr>
<td>”</td>
<td>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끌고 결 수 있다면</td>
<td>고행렬</td>
<td>자화상</td>
</tr>
</tbody>
</table>

둘째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는 월북 작가 및 좌파 문인의 작품 또한 다수 수록 되었다.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 남북 및 월북된 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진 이후, 지난 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일제 강점기 좌파 문인들의 작품이 다루어 지게 되며 제 7차 문학 교과서에서는 그동안 왜
곡되었던 좌파 문인의 작품을 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전보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는 곧 제 6차 교육과정까지 문학 교과서 뿐만이 아닌, 국어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남·여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문학적인 가치가 새롭게 조망되고 이들이 추구한 문학과 이념을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석과 정지용은 물론이고 엄화와 카프문학의 선택과 배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가 교육 국면에 작용한 역학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엄화 시의 경우는 광복 직후 간행된 교과서에는 수록되었으나 제 1~6차 교육과정까지는 엄격히 배제되었다가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다시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19)

이처럼 이 전 교과서에서는 실리지 못했거나 극히 일부의 교과서에만 소개되었던 작품들이 제 7차 문학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지만 제 7차 문학 교과서에는 작품 선정 및 작품 편중, 그리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점 등 적잖은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먼저 제 7차 문학 교과서는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의 작품까지 포함, 현재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를 많이 수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당대 시문학의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수용자와 시문학과의 거리를 좁히는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문학사적으로나 문학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얻지 못한 작품을 무분별하게 다루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당 서정주(1914~2000) 시인을 볼 수 있는데, 국어 교과서에서는 서정주의 작품이 완전히 사라졌다.

손진은 은 제 7차 교육과정부터 눈에 멋지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고

등학교에서 서정주의 시가 빠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가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면서 '젊은 시인들은 아직 평가가 유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교과서에는 문학사에서 훌륭한 시인이 평가받는 원로, 중진들의 작품을 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정주의 시를 빼 채 한국 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 며 중·고교 교과서에 미당 서정주의 작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했다.

국정 교과서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만인이 공유하고 알아야 할 시의 목록에 미당 서정주의 시가 빠져 있다는 점은 적잖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 작품의 선정은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작품 감상의 원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함으로써 상상력을 계발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체험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점에서 이처럼 지배이데올로기의 성급한 적용으로 인한 문학교육 제제 선정은 다시금 고려해야 한다.

2)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문제점 고찰

제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는 문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개념과 그것을 익히는 과정을 바탕으로 한 "수용과 창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하) 권에서는 주로 문학과 문화의 관련성의 입장에서 그 개념을 제시하고 문학의 변화 양상인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에

서는 수용과 창작이나 역사의 흐름인 기본적인 취지를 떠나 문학 교과
서에 수록된 시 작품 자체를 편찬자 임의대로 해석 및 분석함으로써 학
습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창의력을 저해시키고 있다. 흔히 시 교육에 있
어서 시에 쓰이는 시와 시의 주제들은 막연하고 모호한 의미를 갖는
dag고 하며 이를 ‘시적 의미의 다양성’이라고 칭하거나 독자의 이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인의 작품
을 통해 어휘의 새로운 의미와 주제를 창조함이 시의 올바른 이해요, 창
의적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시어의 다의성이나 애
매성을 고려하더라도 시인의 의도하는 바를 가장 근접하고 정확하게 파
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시, 그리고 문학교육에 대한 학습자
들의 폭넓은 이해 및 다양한 해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홍정선은 ‘수능시험과 문학교과서로 본 우리나라의 문학교육’ 이란 기
고에서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문학교과서가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도식적으로 해설할 뿐 아니라, 사실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
다. 이는 곧 현 교육현장에서 한 편의 시가 날날이 해체되는 분석주의
식 학습 방법과 이론적인 지식만을 강요하는 학습 방법으로부터 비롯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문학 교과서에 실린 「이별가」라는 작품을 예로 통해 도식적이
고도 잘못된 교사용 지도서의 해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워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나 워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빗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달려서

뭐락카노 뭐락카노
색어서 동아랫줄은 삭아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뭐락카노 뭐락카노
나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나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이 시는 시집『慶尙道의 가랑잎』(1968)에 실린 작품으로서, 고향인 경상도의 사투리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숙한 시각을 표현한 박목월의 후기 시 세계를 잘 보여 준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한 향토 회귀적인 특성을 지닌다. 경상도는 그가 자란 고향이고, 가랑잎은 언젠가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게 될 자신을 암시한다.

이 시기 박목월 시의 한 특징으로 경상도 방언의 빈번한 사용과 삶에 대해 다향적인 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별가는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작품에서는 말줄임표를 사용한 생략의 미와 고백하듯 자연스러이 토로되

는 서술적 가락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말줄임표의 사용은 그의 고유한 시적 기법이기도 하다. 정지용 시인은 박목월의 '문장'에 주목하며 '北에는 소월, 南에는 목월' 이라 하며 「시선후평」에 "박목월은 민요시로 시를 쓰며, 그것이 소월보다 목월 쪽에 더 많으며 그것만 충분히 정리하고 나면 목월시가 바로 조선시다." 23) 라고 목월시의 시적 운율의 민요적인 점과 그 가능성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이 작품의 해석을 보면 서정적 자아 '나'가 시적 대상인 '너'의 관계를 죽은 아우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 당시의 모습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며 서정적 자아인 '나'가 시적 대상인 '너'인 죽은 아우를 상실한 고통을 극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작품이 '하관'과 마찬가지로 아우의 죽음을 전개시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적 대상인 '너'를 서정적 자아의 '아우'로 보아야 할 것인가. 시인이 아우의 죽음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이 작품에서 아우의 죽음을 전개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하관은 그 작품 내에 시적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이 작품은 어떤 특정인의 죽음을 두고 제도한 작품이 아니다. 또한, 작품 내 '그'가 누구인지도 분명치 않다. 다만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체념과 한계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은 모든 인간인가? 실제로 시인이 아우의 죽음을 겪었기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시인 본연의 사랑, 의식·주, 죽음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간사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시의 세계로 보여 지며 '니 뮬락카노'에서 '니'라고 하듯 연장자가 아닌 자식이나 친구나 동료 정도로 보여진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나'가 이승인 강 이편에서 저승인 강 저편으로 건너간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주제는 '그리움'과

23) 정지용, 「시선후평」, 「문장」, 1940, 2권 7호, p.94.
‘생사를 초월한 달관적 태도’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 시는 사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에서 시작되나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체념적일 수밖에 없으며 작품 전체적으로는 삶과 죽음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관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가는 벼머리에선 화자가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승과 저승에 따르서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 서로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상황은 1~2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냐, 오냐, 오냐’라는 수긍의 표현을 이와 함께 배치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체념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즉, 김소월의「초혼(招魂)」이나 서정주의「귀촉도(歸蜀道)」에서 다루는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수긍과 체념의 자세로써 슬픔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에서 간접한 그리움으로만 유도하기보다 생각을 초월한 달관적 태도, 체념적 태도, 또는 죽음에 대한 한계 인식이나 죽음에 대한 인정 등과 같은 내용이 함께 언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우리 문학에서 ‘강’이라는 시어는 건널 수 없는 ‘단절, 이별, 죽음’의 의미로 쓰인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놓은 메개체이며 삶과 죽음의 간격을 강에 비유한다. 즉 강의 저편이 저승이라면 이쪽은 이승이다. 그렇다면 ‘강’ 하나를 사이를 두고 저승과 이승을 구별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점, 그리고 ‘이승과 저승으로 떠나가는 벼머리’라는 설정이 그리 멀고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시인의 죽음에 대한 달관적 태도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인간 존재의 길이 아니라 연속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가능하다. 그렇다면 ‘강’이라는 시어를 무조건 ‘강 = 단절’로 찍어진 해석을 하는 것
은 학습자들의 폭넓고 다양한 시의 감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학 자습서에서는 ‘뭐락카노’의 시어반복에 대해 의미상 점층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운율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시에서 중점을 이루는 시어는 ‘뭐락카노’이다. 경상도 방언사용에 의한 소박한 정감을 표출하고 동시에 반복을 통해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심을 이루는 ‘뭐락카노’라는 경상도 지역의 방언은 한국 시사(詩史)의 전통에서 볼 때 특이한 예에 속하는데, 이 시어가 소설의 화소(話素)처럼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에 문학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이나 그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고 여러 연구자들이 본 다양한 시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시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농인 그 꽃을
사뿐히 쫓아 밟고 가시움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시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24)

김소월은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시인으로 민요적 운율과 자연스러운 일상어의 구사, 여성적 어조로 민족 시인의 위치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김소월의 시 세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시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연인과의 이별을 가상적 주제로 하여 그 사랑의 감정을 시로 쓰는 작품이며 화자는 스스로 남을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자 사랑이라는 가치 척도에 있어서 화자가 당한 이 같은 상황보다 더 비극적인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시상(詩想)의 전개 과정</th>
</tr>
</thead>
<tbody>
<tr>
<td>1연</td>
<td>이별의 정한(情恨)</td>
</tr>
<tr>
<td></td>
<td>이별의 상황을 가정</td>
</tr>
<tr>
<td>2연</td>
<td>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td>
</tr>
<tr>
<td></td>
<td>이별의 상황에서의 전통적인 정서와 대응 방식</td>
</tr>
<tr>
<td>3연</td>
<td>원망을 초극한 희생적 사랑</td>
</tr>
<tr>
<td></td>
<td>전통적 정서인 한(恨)의 의미</td>
</tr>
<tr>
<td>4연</td>
<td>슬픔의 극복</td>
</tr>
</tbody>
</table>

또한 1 ~ 4연의 감정 발전을 보면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의하여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화자는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슬픔에 앞서

연인을 말없이 고히 보내 드리고 (제1연),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려 드리며 (제2연), 떠나는 연인에게 짓밟힘을 마다하지 않고 (제3연, 이 경우 땅에 뿌려진 진달래꽃은 화자의 마음과 동일화된 객관적 상관물이 될 것이다.), 마침내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기로 결심 (제4연) 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의 해석이 있었다.

오세영은 「진달래꽃」에서 시적 화자는 연인에게 버림받아 증오심과 욕한에 빠진 사람으로 보고, 이처럼 맹목적인 순종이나 관용의 미덕만을 보여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곤자야 보호의 대표적 방위인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 으로 보고 표면에 나타난 순종의 미덕은 자기 방위를 위한 위장술 이상이 아니며 화자의 진실은 오히려 언어의 심층에 숨어 있다는 뜻으로 보았다. 즉 화자는 '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므로 '이별의 정한, 순종 보다는 님과의 이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 하고 언제인가 다시 그가 돌아올 것을 '확신'이나 '기대'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대행은 현 교육 현장에서「진달래꽃」주제에 대해 '이별의 한, 한의 정서, 이별의 노래' 라고 교육학에 반론을 제기했다. '나 보기 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는 첫 구절을 영어로 번역할 때 'when'이 아닌 'if' 로 가정법 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면 시적 화자는 '나 보기 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라고 말했을 뿐, '님은 지금 가십니다'라고 하

25) 위의 책.
26)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 이란 한 인간에게 있어 속과 같이 다른 심리학의 일종으로 자아 보호의 대표적 방위 기제를 뜻한다. 프로이트는 하나의 본능 충동을 다른 본능의 충동으로 전위시켜 불안을 해소시키는 정신 현상이라 규정하였다.
27) 오세영, 「김소월, 그 삶과 문학」서울대출판부, 2000.9.
지 않았으며 “절대 이별은 없어”가 전제되는 것이28)라고 보고 있다. 이는 즉 사랑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오히려 가상적인 이별을 생각했다고 말해야 그 시의 정서는 더욱 더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또한 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자기를 억제하고 비린 냄를 품망은커녕 꽃까지 뻗려주겠다는 인심 좋은 한국 여인의 관용과 눈물조차 풀리지 않겠다는 극기의 그 여인상이 어울리는 곡은 유교적 이념의 등록상표인「국화」요 「매화」로 보는 견해이다. 이처럼 다각도로 보는 다양한 시의 해석이 있을 때 비로소 학습자들도 시를 전개적인 맥락에서 체험하고 읽바른 시의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의 복합적 의미성에 있어서 현 교육현실이 반드시 하나의 정답만을 불러야 하는 사지선다형의 개판식 답안지로는 이상적인 시 교육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교과서나 칠판에서 날ลาด이 혼져드는 분석주의식 학습 방법으로 인해 전개적인 시 체험이 흐름을 방해하고 잡다한 이론적인 지식을 늘어놓는 것은 또한 감 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적.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가리킨다. 이는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교과용 도서’에 속하지만,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용인 것과 구별된다. 이처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특성은 실제 시 교육이 무엇을 채워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교육 전통으로 볼 때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 서의 위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교과서를 통하여 배운 시 작품은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준거 역할을 하며, 지적. 정서적 감수성이 예민한 때 에 집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오랜 잡북기를 거치더라도 감동이 약하지 않는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의 압축이자 전형인 것이다.29)

28) 김대행, 「논술과 문학교육의 기본 방향」, 『우리교육』, 1995. 7.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경험 영역과 정서의 발달 정도 및 심리적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학생들의 체험과의 관련 속에서 작품을 이해시켜야 한다.

3. 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문학 교육의 목표는 구체적인 교수 - 학습 방법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창작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 목표와는 다르게 시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학습자에게 작품에 대한 감상과 창작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대학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 입시제도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학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시 교육과 관련된 수업 준비나 수업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가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좋은 시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속에 담긴 어떤 좋은 생각이나 느낌도 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 교육이 교사의 편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학습자의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시의 감상 노력 없이 전문가들의 해석에 의한 교사의 가르침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대상이 됨과 동시에 그 이해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넷째, 시 교육의 교수 - 학습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주체적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는 곧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느낄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개방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 교수 -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 교육 방법은 대체로 일제 학습과 강의・문답형으로 된 분석식 수업인데, 이러한 지도 방법은 학생이 주체가 아닌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수업 전개의 형태일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시 수업에서의 평가가 학생들의 주체적인 시 감상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피드백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는 학생 학습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적절하게 피드백될 때 학습자의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학생들의 느낌과 생각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구안되어야 한다.
다음의 시를 통해서 실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사례를 연구해보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윤동주, 「서시」 30)

해당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개관

1) 작품 선정의 취지

(중략)

특히 서시는 시인의 역사 의식 및 현실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학생들은 이 작품의 학습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2) 지도의 핵심

윤동주의 서시는 도덕적 순결성과 성세한 어조가 순수한 우리말을 통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특히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별, 바람, 밤’ 등의 시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접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언어의 다양한 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작품 연구
(중략)
처음 4행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라고 하여 초월적 세계와 도덕적 순결성을 지향하는 화자의 삶의 지표를 제시하고, 악상 현실 속에 부대끼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4행에서는 운영에 대한 인식과 투철한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소명의식을 표현함으로써 미래의 삶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보여준다. 마지막 행에서는 이와 같은 결의를 어둠과 바람 속에서도 결코 깨지거나 흐려질 수 없는 외로운 양심을 의미하는 ‘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는 젊은 지식인의 고뇌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백(表白)한 시다. 그래서 더욱 진솔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백적인 시가 감상에 흐르거나 관념에 빠지기 쉬운데, 이 시는 적절한 상징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서정시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작품선정의 취지에서 「서시」를 ‘시인의 역사의식 및 현실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처음 이 시를 접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시를 읽고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처럼 시인 윤동주의 역사 의식 및 현실 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인 윤동주에 대한 소개나 이 시를 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나 그것도 교사
의 수업을 통해서나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에 대한 어떤 소개나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학습자가 이 시의 감상만으로 시인의 역사의 식이나 현실 의식 보다는 시인의 내면세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저도 핵심부분에서 학습자들에게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별, 바람, 밤’ 등의 시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적절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로 인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매우 짧은 수업 시간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적절 생각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시어에 대한 해석을 규정해 버리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4행에서는 운명에 대한 인식과 투철한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소명의식을 표현하고, 이 작품은 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는 젊은 지식인의 고뇌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백(表白)한 시’ 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어에 대한 해석을 시인의 내면에 대한 고뇌보다는 일제치하 상황이라는 점을 통해 모든 시어를 ‘시대적 상황’과 결부 시켜 역사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지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서정주의 시 ‘추천사’를 예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미연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혼들리는 수양버들나무가
배갯모에 놓아듯 한 풀꽂데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야.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波濤)를 밀어 올려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야.

서정주, 「추천사」 31)

1. 작품개관
(1) 작품 선정의 취지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 소설인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다. 또한 「춘향-그네-하늘」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과로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끝내는 그 과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춘향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하 생략)

(2) 지도의 핵심
이 단원은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읽히고 그 관점에 따라 직접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단원이다. 특히 이 작품은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학생들의 감상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므로, 학생들이 문학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익숙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시어의 의미나 운율과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작품 연구

이 시는 미당(美堂) 서정주가 고전 소설 「춘향전」을 모티프로 지은 작품으로, 「춘향」의 목소리를 통해 시의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춘향」은 시인의 의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창조적 인물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혁명은 「춘향전」에서의 전형성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사랑의 괴로움과 갈등에 빠져 고뇌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한 여인의 보편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시는 ‘현실적 삶의 고뇌로부터 벗어나 이상적 세계로 향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사」의 시어 중 그 어느 부분에서도 ‘현실적 삶의 고뇌로부터 벗어나’ 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작품 선정의 취지부분에서 설명된 ‘현실 세계의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는 같은 교사용 지도서의 지침은 학습자들의 열린 상상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입견을 통한 왜곡된 해석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품 연구를 살펴 보면 ‘숙명적으로 사랑의 괴로움과 갈등에 빠져 고뇌하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괴로움과 갈등에 빠져 고뇌’ 하는 모습은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모습은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해석 또한 왜곡이 있다. 이처럼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은 학습자의 시어를 통한 감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시 속에서 춘향의 모습을 ‘현실 세계의 고
뇌, 괴로움 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극복’ 하려는 모습을 시적 화자와는 관계없이 학습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이러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교사의 일방적인 분석식 ·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습자는 시 교육에 있어서 점차 그 관심과 참여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를 한정짓는 방식으로 수록된 시의 감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은 결과적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Ⅲ. 시 교육의 효율적 개선 방향

1. 시 교육의 바람직한 제재 선정 방안

문학교육에 있어서 문학교과서가 갖는 교육적 의의는 매우 크다. 문학 교과서는 인간 내면의 정서와 감상을 언어로 형상화한 문학 작품과 문학의 이해나 감상을 언어로 형상화한 글로 구성된다. 특히 시 교육의 현장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교과서 이외의 모든 자료에 앞서 최우선적인 교육의 제재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시가 잘 못 선정되었을 때에는 교수 - 학습의 기본 축이 제구실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3\)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제 7차 문학 교과서의 수록 시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재 선정이 되었는지 살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 교육의 제재 선정 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제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는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의 작품까지 포함, 현재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를 많이 수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당대 시문학의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수용자와 시문학과의 거리를 좁히며 현대시를 문학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는 등 현대적인 학습자의 감수성에 맞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재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몇 작품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서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 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33)

이 시는 1982년『서울의 예수』에 수록된 작품으로 시인 정호승은 보통 빈민이라는 존재의 고독과 좌절, 그러나 내일을 향한 희망이 숨겨져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섬세한 정서가 가득한 다정한 세계를 창조하였다.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는 사람이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는 사람이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토로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도 이러한 배경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보다/ 그대를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습니다.”라는 마지막 시구를 통해 표현하는 전환이 보여주고 있다. 사랑의 아픔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군어 버린 끓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끌고 싶을 때 켜고 싶을 때 걸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꺼고 켜 줄 수 있다면」34)

위는 1988년 『길 안에서의 택시 잡기』에 수록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김춘수의 존재론적인 시 『꽃』을 시적으로 페러디(parody)한 이 작품은 페러디도 하나의 문학적 행위면서 페러디를 통해 탄생한 작품 역시

문학 창작의 영역 속에 온전히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가 되고 있다. 김춘수의 시가 사실적인 존재가 아닌, 관념적인 존재인 꽃을 소재로 등장시켰다면, 이 작품은 가시화될 수 있는 사물이면서 생필품의 하나처럼 된 라디오를 소재로 등장시킨다. 또한 김춘수의 시가 지극히 진지하고 묵직하게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노래한다면, 이 시는 그가 반대로 가볍고 감각적인 어투로 사랑의 세태를 풍자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랑의 의미를 그저 폐하고 가볍게만 받아들이고 사랑 자체를 일회적으므로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풍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시 두 편 모두 각각 1982년, 1988년 작품으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을을 보여 주는 예이다.

둘째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는 월북 작가 및 좌파 문인의 작품 또한 다수 수록 되었다는 점이다. 빙진 이래로 보기에 벗어나게 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 남북 및 월북된 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진 이후, 지난 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가 좌파 문인들의 작품이 다수여져 되며 제 7차 문학 교과서에서는 그 동안 왜곡되었던 좌파 문인의 작품을 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전보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는 곧 제 6차 교육과정까지 문학 교과서 뿐만이 아니, 국어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남북작가들의 작품들이 문학적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이들이 추구한 문학과 이념을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석과정치영은 물론이고 임화와카프문학의 선택과 배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가 교육 국면에 작용한 역학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화 시의 경우에는 광복 직후 간행된 교과서에는 수록되었으나 제 1 ~ 6차 교육과정까지는 엄격히 배제되었다가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다시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35)
감이 붉은 시골 가을이
아득히 푸른 하늘에 높 긴
미결사의 가을 해가 밤보다도 길다.

갔다가 오고, 왔다가 가고,
한 간 좁은 방 벽은 두터워,
높은 둥그 가에
하늘은 어린애처럼 찰락거리는 바다

나의 생각고 궁리하던 이것저것을,
다 너의 눈길 위에 실어,
구름이 흐르는 곳으로 띄워볼까!

임화 「하늘」 부분. 36)

임화(1908 ~ 1953)는『현해탄』,『찬가』,『회상시집』,『너 어느 곳에
어느나』 등의 시집을 남겼으며 그의 문학사적인 위치는 시인으로서 보
다는 비평가, 문학사가, 운동가 등으로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화는 카프37(KAPF)의 주요 인물로 식민지와 광복시대에 걸쳐 활약한

35) 박기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문학교육학』, 제 11호,
3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국어 (상), P. 33.
37) 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으로 시인 임화는 1925년 카프에 가입한 후 1935년까지 주
요 영원으로 활약. 카프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시인이자 문학 운동가였으나 월북 문제 때문에 가려져 왔었다. 그는 1947년 월북하여 1953년 북한에서 작고하였으나 1940년부터 발표한 「조선신문학사」 등의 문학사적 업적은 어떠한 시상을 떠나 지금까지도 가장 뛰어난 문학사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광복 이후 '조선문학동맹'의 핵심 멤버로서 그가 보여 준 운동가로서의 면모 또한 광복 이후의 시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 배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다른 문학사의 열의와 문예 이론의 탐구를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사상적인 문제를 둘러서 시인이 추구한 민족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을 가졌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린 삼 깊은 금점판
나는 괴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백석, 「여승」부분.

백석(白石) 시는 초기에는 대체로 평북 사투리와 토속적인 소재의 선택으로 농촌 공동체의 원형적 정서를 그려 내다가, 후기에는 여행을 통

한 풍물시와 모더니즘 시풍을 보여 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일생, 가족 구성원들이 상실되면서 일어나는 삶의 비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원래 농삿 일을 했을 법한 지아비는 광부가 되어 집을 나가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 급점관을 돌며 옥수수 행상을 하고, 그 고생에 못 이겨 딸은 죽어 돌무덤에 묻히고, 자신은 산 속 절간에서 삭발을 하여 여승이 되었다.

절제된 시어와 직유의 표현 기법으로 일제 강점기의 민족 현실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telefon' 처럼 알리지를 찾아 나간 지아비, '가을밤같이 차게' 울면서 자식을 때리는 어미,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간 어린 딸, 온 가족을 잃고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산봉의 울음에 곧 여인의 울음이요, 여인의 머리었긴 곧 눈물인 것이다. 이 시는 사회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리얼리즘 시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좌파 문인의 수록된 시 작품 가운데 이용악의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홍집이라고 꼬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 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습니다.

재를 넘어 무복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놓은 동글소
모두 없어진 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이용악, 「낡은 집」 부분. 39)

이 시는 민족의 처절한 현실과 함께 사랑하는 조국을 뒤에 두고 멀리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로 떠날 수밖에 없던 유랑민들의 삶의 모습을 떠 올리게 하여 연민을 느끼게 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악의 초기 시는 이미지즘 경향이 점점 나타난다.

살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 붙는 설달 그림
밤이
알갖 손을 풀어 꺼낸 혼들길래
술을 마시어 날리는 소림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 온 길가에 젤레 한 송이 없었어도
나의 아롱범은
자욱 자욱을 떠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눈이 고수며릴량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아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졌다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부분. 

동일한 좌파 시인의 작품으로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어머니 등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현재 고국을 떠나 멀어져 있는 곳에서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며 이러한 정서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멀어져 있는 곳에서 헤어진 화자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를 찾는데 ‘우라지오’ 는 화자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로만 듣고 동경하던 항구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그 곳은 어린 시절 그가 동경하던 세계가 아니고 오직 추위와 외로움이 있을 뿐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과거 가족들을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나, 고향으로 갈 길이 전혀 없다.

이 밖에도 이용악의 「오랑캐꽃」, 「전라도 가시내」 등 좌파 문인의 작품이 다소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 참여적인 민중 문학 작품 가운데 시 작품을 살펴보면 고은의 「눈길」과 최두석의 「성에 꽃」, 신경림의 「동해바다」, 괴제구의 「칠석날」 등이 수록되었으며 그 작품을 예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격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러나다 대지(大地)의 고백(告白)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고은, 「눈길」의 부분. 41)
이미지를,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는 의미에서 관용 또는 포용의 이미지를 가진다. 또한 ‘어둠’은 ‘눈’으로 덮힌 평화의 경지를 바라보며 느끼게 되는 평온하고 고요한 평정심의 의미이기도 하다.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떨린 찬란한 차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흙은일수록
선명히 피는 성에 꽃
어제 이 버스를 타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관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순 전람회에 들어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떠어파리 하나, 셈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최두석, 「성에꽃」 부분. 42)

최두석(1956~)은 현실의 고단한 삶과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체의 시적 진술로 연계시키는 등 담담하게 이야기 식으로 펼쳐낸다. 이 시의 화자는 추운 날 새벽 차창에 서린 성에를 바라보면서 그 버스를 타고 다녔을 무수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있다. 도시 변두리에서 고달픈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하나씩 떠올려 불수록 그들에게 대한

화자의 애정이 깊어만 간다. 그 애정은 차츰 그들 모두가 헛겨우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확대 되어 간다. 창을 통해 시상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며 이를 내면화 하였다.

시 작품의 선정은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작품 감상의 원리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함으로써 상상력을 계발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체험을 하는 데에 그 목적’ 이 있기 때문에 성급한 적용으로 인한 문학교육 제재 선정은 다시금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는 곧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나, 해설은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정의적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육 내용에 부합하며, 교과서 합용 제재로서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학 비평가와 교육 전문가의 합의를 거친 수준에 맞는 작품들을 말한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되는 시 작품은 그 제재 선정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성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 선별하여 활용하고야, 시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과서 수록 시는 기본적으로 시적 이론이나 기교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과 지나치게 교훈적 주제의식이 강조된 것은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곳 제재 선정의 편중을 불러와 결국 학습자의 홍미와 관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시 교육을 위한 제재의 선정 범위는 교과서를 넘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에 의존하고,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학 교육의 제재를 교과서의 지면으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도교사는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과 관련된 문학 교재를
 찾아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신화된 작품 감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가려내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학 교사의 높은 안
목과 지식을 통하여 시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수용자의 환경조건에 맞
도록 늘 새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43)

문학 교과서에 수록될 시작품의 선정에서는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염려하는 교육입안자, 교과서 편찬자, 교육자 등
이 마련해야 하는 가치 면에서의 요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밖에도 교과서 수록 시의 제재 이외의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인터넷을 통한 시 교육의 집목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 감상 등은 시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심상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로부터 제공
된 작품들을 접함으로써 작품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특징은 교육 활동의 주체가 학습자이며, 교사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학습자 중심의 시 지도는
시의 수용에 있어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유
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은 먼저 시의 이해 과정
에서 시의 구성요소를 아우르는 전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작

품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이해와 감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과정을 통한 의미의 재구성으로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지나친 분석을 방지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은 현시 교육의 효율적 개선 방향이라 보여지며 학습자 중심의 수용론적 접근과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수용론적 접근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이며,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특성을 전통적인 교육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육의 비교 44) -

<table>
<thead>
<tr>
<th>구 분</th>
<th>전통적 교육</th>
<th>학습자 중심 교육</th>
</tr>
</thead>
<tbody>
<tr>
<td>바탕이론</td>
<td>o 행동주의, 객관주의</td>
<td>o 진보주의 교육사조, 인지심리학, 구성주의</td>
</tr>
</tbody>
</table>
| 지식관    | o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에 대한 객관적 지식 사항의 수동적 임기 | o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스스로가 구성해 낸 의미  
  o 지식의 수준과 질(고등 사고력 중시) |
| 교육관    | o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                             | o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                                   |
  o 교육은 미래의 성인 생활의 준비 | o 교육은 학생의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                  |

학생의 흥미, 개인차, 개성, 능력 중시하지 않음
학문의 논리적 체계 중시
박학 다식한 인간 육성
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킬수 없다
학생의 흥미, 소질, 개성, 창의성, 내적 동기 중시
실생활의 경험 중시, 과제 중심의 교육, 문제 해결 능력 강조
창의적 합리적 인간 양성 목적

- 수업형태 -
<table>
<thead>
<tr>
<th>수업형태</th>
<th>학생 중심, 결과 중심, 교재 중심</th>
<th>학생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th>
</tr>
</thead>
<tbody>
<tr>
<td>교사 중심, 결과 중심, 교재 중심</td>
<td>일체 학습, 교사의 명령, 강제, 처벌 공포</td>
<td>개별화 학습, 도의 학습, 자율적 선택 강조</td>
</tr>
<tr>
<td>학생의 역할</td>
<td>타율적, 수동적, 추수적</td>
<td>자율적, 동동적, 자발적</td>
</tr>
<tr>
<td>교사의 역할</td>
<td>통제자, 감독자, 지식의 제공자</td>
<td>안내자, 상담자, 조성자, 조력자, 촉진자</td>
</tr>
</tbody>
</table>

학생의 중심의 교육의 특징은 교육 활동의 주체가 학습자이며, 교사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시의 각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에 대한 감상력을 높이고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텍스트 중심에 대응되는 학습자 중심이란 주어진 텍스트에 학습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사 중심, 텍스트 중심의 시 분석을 지양하는 수용론적 측면에서 소통행위로서의 문학은,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와 독자가 의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며 작품의 수용이 바로 작품세계와 독자의 삶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문학의 수용이론은 수용자, 즉 독자가 문학 현상에 관여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수용이론에서 문학 텍스트 수용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독자의 의식 속에서 자신의 경험 세계와 대응시키면서 하나의 이해를 조직해 낸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상상력을 발휘하여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상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사고의 전환과 확장을 가져오게 되고, 텍스트는 독자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으로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작품으로 승화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시의 수용 과정'을 '텍스트를 작품으로 내면화한 이해와 감상'으로 볼 때,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은 무엇보다 이해와 감상의 상호보완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의 시 교육은 이해와 감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실제로 80년대까지 우리의 시 교육의 주류를 형성해 온 신비평은 시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의 내재적 의미 해석을 강조하는 분석적 방법으로, 시의 이해에는 근본적으로 기여하였지만, 감상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시 교육의 목적인 학습자의 상상력 개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은 먼저 시의 이해 과정에서 시의 구성 요소를 아우르는 전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작품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이해와 감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과정을 통한 의미의 재구성으로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지나친 분석을 방지할 수 있다.

2)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안

과학적 중앙 문학교육’ 이란 기존의 가치관 중심, 텍스트 중심의 문학 교육 체계에서 이루어져던 교사 중심, 텍스트 중심·결과 중심·주입식 교육·압기 위주의 학습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등장시키려는 현대 교육적 동향 중 문학 교육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신비평 이론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중심의 문학 교육이 완전히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무렵인 1970년대 후반기에 독일의 수용미학이 소개된 이후, 8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이를 문학교육에 적용하려는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95년 이후의 일련의 교육 개혁 운동 역시 학습자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확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용이론에서 이러한 수용자(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텍스트보다 우위에 둘 수 있었던 것은 수용자를 ‘이상적인 독자’로 설정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한 현장 교육에서의 수용자는 ‘이상적인 독자’가 아닌 학생이다. 학생은 문학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이상적 독자가 아니므로 그 수용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용자로서의 학생은 소통 과정에서의 수신자인 일반 독자보다는 혼란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사나 비평가 등의 매개자가 해석의 과정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개입에 있어서도 해석의 전반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기보다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시 감상은 수용자인 독자(학습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예술적 체험을 하고, 작품 세계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구인환은 “작품은 어디까지나 독자에 의해서 읽혀지고 받아들여짐으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 독자에 의해 작품 속의 의미가 올바로 수용되었을 때, 그 작품은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시를 배우는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주체자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문학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에 대한 지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사고력을 열어줄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시 교육이 인지적 수준에 머무는 인지 학습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단순히 이해에 그치지 않고,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정서와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에게 내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교수 -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이이고 동정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활발한 수용과정을 나무는 것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진정한 시 감상의 기쁨을 알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문학 작품이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람직하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시 자체를 충분히 스스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시 작품의 수용 과정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정한 모범적인 시 해석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작품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과 비평을 알고 나면 그 범주 안에서만 감상하게 되어 결국 학습자의 사고를 제한하고, 상상력이나 감상 능력도 신장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47) 구인환·구장환, 『신고 문학개론』, 삼지원, 1992, p. 112.
셋째, 교과서에 의존한 입시위주의 단순 암기식 수업과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를 읽고 즐거움을 음미할 수 있으며 시적 상상력이나 사고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방법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행 문학 수업 방식은 입시위주의 교육 여건 때문에 여전히 교사 중심의 설명과 해석에 의존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 펼모하고 이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텍스트 중심의 수업 형태로 일반 교과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주체인 학습자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학습자의 창작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 교육은 이제 문학 작품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넘어 표현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 점은 이미 제 7차 교육과정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문학 교육이 문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했던 제 4차 교육과정이나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목표로 했던 제 5차와 제 6차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을 바탕에 두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학 교육은 문학 작품의 이해와 창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습자 중심의 바람직한 시 교육 방안을 교수-학습 모형을 통해 적용해보자.

학습자 중심의 바람직한 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연구에 앞서 대표적으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구인환 외 시 수업 절차 모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 모형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수-학습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시의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되었다. 계획에서부터 내면
화에 이르기까지 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교적 치밀하게 짜
여진 학습모형이다.

구인환 외, 시 수업 절차 모형48)

(1) 계획 단계
   ① 수업 목표의 설정
   ② 평가 요목의 작성

(2) 진단 단계
   ① 시에 대한 지식, 체험, 감수성의 진단
   ② 진단을 위한 도구 마련

(3) 지도 단계
   ① 시 작품의 전체에 접근
     - 낭독 및 윤독
     - 관련경험의 제성과 경험 교환
   ② 시 작품의 부분에 접근
     - 시 작품의 상황 파악
     - 시적화자의 톤 이해
     - 시의 이미지 파악 - 은유의 원리
     - 시의 음격 이해
     - 시의 구성(구조) 이해
   ③ 시감상의 종합적 재구성
     - 내용과 형식의 어울림
     - 말맛과 의미의 어울림
     - 의미의 다의성과 함축성 이해

(4) 평가 단계
   ① 문학교육 평가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의거

(5) 내면화 단계
   ①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② 시적 체험의 수직적 확대
   ③ 시 작품 쓰기

이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단계인 내면화 단계만이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체적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국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이론적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 전개를 해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위의 시 수업 모형을 참고로 수용이론에 바탕을 둔 시 제재 수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구인환 외 시 수업 절차 모형’을 큰 틀로 하여 전개하면서, 지도 단계와 내면화 단계를 제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 문학 텍스트의 이해 과정과 수용자와 텍스트간의 상호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시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시 교수-학습 모형〉

(1) 계획 단계
   ① 학습목표 설정
   ② 평가 목표의 작성

(2) 진단 단계
   ① 시에 대한 지식, 체험, 감수성의 진단
(3) 지도 단계

① 시 작품의 전체적 접근
- 소 모임 구성
-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 발표
- 시 전체의 느낌 표현하기
- 모임 구성원 간의 느낌 교환하기

② 시 작품의 부분적 접근
- 시 속의 시정적 화자의 심정 써 보기
- 시의 맥락 찾기와 내용 파악하기

③ 시 감상의 종합적 재구성
- 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화 활동
- 시를 음미하며 낭독 및 묵독하기

(4) 평가 단계

① 문학교육 평가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의거
② 시 교육 평가의 방법에 의거

(5) 내면화 단계

① 자신과 관련지어 시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을 발표하기
- 시적 체험의 수직적 확대
② 제재, 주제면에서 유사한 작품 감상
-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③ 같은 주제나 제재로 시 작품 써보기

위에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을 서정주의 「추천사」에 적용하여 시 수업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자.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혼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데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올령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잘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波濤)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서정주, 「추천사」 49)

(1)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의 확인이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자가 수업

49) 디딤돌, 「문학」상, 김윤식 외 4인, 2003.
을 마친 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시 학습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본 텍스트와 관련 지어 설명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감상과 관련된 정의적 목표를 중심 으로 하되, 시의 장르적 장치에 관한 인지적 목표도 고려한다. 수업 목 표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되어야 한다.
① 작가의 삶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안다.
② 독자의 경험이 작품 이해에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작품을 감상한다.
③ 시를 낭송해 보고, 각 시구에 쓰인 시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④ 시작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작품 속에 쓰인 수사법과 모티프를 말할 수 있다.

(2) 진단 단계
본 텍스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학습 요소 및 기능을 결정하고, 이 학습 요소에 대한 진단 활동을 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자기 점검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가 이전에 배운 것을 상기할 단서를 주거나, 간단히 다시 설명하여 학습자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① 학습자의 시에 대한 지식을 확인한다.
  - 이 작품의 내용은 무엇인가.
  - 나는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시를 감상하기 위한 배경지식이란 무엇인가.
  - 시의 화자란 무엇인가.
  - 상징이란 무엇인가.
  - 시의 운율이란 무엇인가.
② 학습자의 지은이와 지인의 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정주의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3) 지도단계

① 시 작품의 전체적 접근
- 소 모둠 구성
전 학습 과정을 수행하면서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동 학습의 원리를 적용으로 하기 위하여 소 모둠을 구성한다.

-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 발표
텍스트 내용과 무관하게 학습자의 자유로운 연상 내용이나 느낌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시의 제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여 작품의 내용을 예측하고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 제목 '추천사'의 뜻이 무엇일까?
  ・ 제목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 생각되는가?
이러한 활동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시를 처음 탐색할 때 먼저 자신의 체험이나 상상을 가지고 접근한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상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고, 그 작용을 유도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상상의 지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 시 전체의 느낌 표현하기
시 전체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구체적인 형용사나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제목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 한다. 시에서 받은 느낌
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미지의 구축을 글자로 쓰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게 하며, 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은 시를 전체적으로 감상할 때 구체적인 시의 요소는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직관의 힘에 의지하여 시 텍스트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올바른 시 감상은 이런 첫 느낌을 어떻게 불러 일으켰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첫 느낌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모둠 구성원 간의 느낌 교환하기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첫 반응을 확장시키기 위한 단계로서, 소 모둠 구성원간에 활발한 대화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의결을 나누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을 촉진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소 모둠의 구성원간의 진솔한 내면의 토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② 시 작품의 부분적 접근
- 시 속의 서정적 화자의 심정 써 보기
  이 단계는 학습자가 시의 화자 입장에서 성정을 써 보게 한 활동이다. 시가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시인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시인의 정서를 표상화 하고 있는 서정적 화자의 심정을 간단히 써 붓으로써 학습자는 시의 배경뿐 아니라, 시적 모티프와 텍스트의 구성에 담긴 시인의 의도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활동을 통하
여 학습자는 처음 자신의 체험을 통한 시에 대한 감상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시 속의 화자가 되어 시의 내면에 자신을 투영하여 감상을 하게 된다.

이 시는 고전소설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춘향이 그녀를 타면서 향단에게 말을 하는 대화체의 독백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화자는 춘향인데, 춘향은 사랑이라는 현실적 가치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순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입장이 되어 학습자들에게 그 심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시의 맥락 찾기와 내용 파악하기
이 단계는 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이다. 시의 맥락 찾기와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 율격과 이미지를 분석해본다.
추천사에서 윤율과 의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연 : 행의 길이가 짧음 - 느린 템포(이상 세계 갈망)
2연 : 행의 길이가 길어짐 - 빠른 템포(갈망의 강화)
3연 : 동일 어구의 반복 - 격렬한 템포(갈망의 최고조)
4연・5연 : 행의 길이가 짧아짐 - 느린 템포(좌절과 여운)

교사는 학습자에게 이러한 압축미와 운율미를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진단 단계에서와 전체적 접근 단계에서 발표했던 학습자의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상기시키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작품 속에 사용된 모티프를 알아보게 한다. 이 시는 서정주의 고전 소설 「춘향전」을 모티프로 지은 작품으로, ‘춘향’의 목소리를 통해 시의 내용을 형상
화하고 있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고전소설 「춘향전」의 ‘춘향’ 과 이 시의 ‘춘향’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단 단계에서 전단해 보았던 춘향전에 대한 학습자의 스키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 감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각 시구에 쓰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게 한다.

・‘그네’의 상징적 의미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적 화자인 춘향이 왜 그네를 타려고 하는지, 그네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네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늘’의 상징적 의미

‘하늘’의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 시적 화자인 ‘춘향’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적 화자인 ‘춘향’이 그네를 타고 왜 하필 하늘에 가려고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시 감상의 종합적 재구성

- 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화 활동

시를 감상한 후 학습자들은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시적 자아의 입장이 되어 시 텍스트를 이야기로 만들어 쓰거나 희곡으로 표현하기 등을 통해 재구성해본다. 학습자가 생각한 텍스트의 내용과 텍스트상에 실제로 구현된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토론한 뒤, 상호 보완적으로 객관적인 사항을 추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의견에 대해서 면박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시를 음미하며 낭독 및 묵독하기

낭독은 시의 발화 상황과 화자의 심리상태 및 어조, 그리고 시어 하나 하나의 음악적 울림들을 섬세하게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묵독은 시의 의미를 학습자 자신의 체험에 주목하면서 내적으로 체험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묵독은 낭독의 경험을 제공하는 감성적 울림을 정신적 울림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교사는 시를 읽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미처 개발되지 않은 학습자들의 감성을 일깨워주거나 작품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 아니라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평가 단계

① 시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을 찾아, 그 의미를 발표하도록 한다.
부분적 접근에서 학습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시의 상징적 의미를 아는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상징적 표현이 시 전체에 기여하는 효과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추천사」에는 많은 상징이 쓰였다. 학습자가 시의 상징성과 그 시어들이 만들어 내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②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를 발표하거나 글로 써보게 한다.
학습자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 개개인
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추천사」에서 시적화자인 ‘춘향’은 그네를 타면서 현실의 괴로움을 벗어나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자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그네의 속성상 다시 땅(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적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망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네를 더 멀리 밀어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여전히 이상 세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해 학습자가 자유롭게 발표하거나 글로 써 보게 한다.

③ 시에 대한 감상의 결과물을 교과서를 통하여 진단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학습활동의 대부분을 교과서에 바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중심의 활동 중에는 순서하면서 학생들의 자신만의 교과서를 학습과정이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교과서를 제출하게 하여 각 단계의 활동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하는 수행평가 형식을 취한다.

(5) 내면화 단계
① 자신과 관련지어 시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을 발표하기
- 시적 체험의 수직적 확대
학습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시의 감상을 접목시켜 종합적인 감상의 글을 작성해보고, 이의 발표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학습자 서로가 작품을 통한 감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② 제재, 주제면에서 유사한 작품 감상
-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춘향을 소재로 한 시들을 찾아보고 각 시들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해 본다. 이 활동은 학습자에게 유사한 제재로 쓰여진 시들이 각각 다른 표현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는 민요 「추천가」와 시 「추천사」에서 그네 타는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말해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오월이라 단옷날 창포 비녀에 연지 찍고
붉은 댕기 휘날리는 까만 머리에 꽂고요
너울너울 나비처럼 그네를 타러 가자
애들이 어서어서 그넷줄을 밀어 다오
희끄리가 줄을 치듯 제비가 꽃을 찾듯
꽃바람에 붉은 댕기 휘날리면서
꽃보라 흩어지듯 물보라 흩날리듯
그네를 타러 가자 하! 그네를 타러 가자
휘영 능청 양손에 그넷줄을 갈라 쥐고
달도 가고 꽃도 같은 너와 나와 그네를 타면
솜구쳤다 떨어졌다 다홍치마 나부낄 때
바람 따라 쏘들대는 꽃송이도 빛을 안고
꽃을 반겨 하늘대는 나비도 무색하다

민요, 「추천가」

이 활동은 그네를 타는 행위에 들어 있는 서로 다른 의미를 밝히기 위한 활동이다. 작품마다 같은 시어나 시구가 나오더라도 그 의미가 다른 것은 시어나 시구의 함축적 의미나 기능이 작품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두 작품에서 ‘그네’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50) 디딤돌, 「문학」상, 김윤식 외 4인, 2003.
③ 같은 주제나 체제로 시 작품 써보기

학생들이 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처음부터 완성도 있는 시 작품을 쓰도록 하는 것 보다는 개작이나 모작을 통하여 연습을 하도록 유도한다. 개작, 모작은 시 작품의 윤활을 살리면서 일부 분을 고쳐 쓰거나 전체를 모방하여 쓰는 활동으로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시 작품 쓰기를 배울 수 있게 한다.
Ⅳ. 결 론

시 교육의 목표는 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시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시 교육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일방적인 텍스트 분석과 내용 전달 중심의 방법으로 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화 일식’라는 미명하에 참고서에 의한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 학습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 또한 개인의 연구 차원에 따라 억지 해석 및 평가가 많다.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수록시의 문제점과 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재’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제 1장인 서론에서는 본론에 앞서 문학 교과서의 성격과 시 교육의 목표, 그리고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 ‘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재’에 대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각 문학 교과서별 기본 방향 및 특징을 함께 현 교육의 문제점에 앞서 제 6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비해 제 7차 문학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는 월북 작가 및 좌파 문인의 작품 또한 다수 수록되었다. 이처럼 이 전 교과서에서는 실리지 못했다는 극히 일부의 교과서에만 소개되었던 작품들이 제 7차 문학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다.

둘째,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문학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얻지 못한 작품을 너무 성급하게 다루고 있다는 우려도 날게 되었다. 따라서 제 7차 문학 교과서 수록시의 문제점은 문학 교육의 시 작품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문제로 각각 제시해 보았다.

셋째는 시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 시교육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학습자에게 작품에 대한 감상과 창작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 교육과 관련된 수업 준비나 수업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가 고려되고 있지 못한 다. 또한 교사의 편의와 시어의 함축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학습자의 감정이익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의 교수 - 학습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주체적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기에 적합하지 못한다.

제Ⅲ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 교육의 효율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 교육의 바람직한 제재 선정 방안 및 수용론적 접근을 통한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시 교육의 바람직한 제재 선정 방안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아야 하며 학생들의 문학적 흥미를 고양시킬 수 있는 시가 선정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 중심의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과서는 문학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문학 작품들을 정해진 감상의 틀에 의해 교육시키는 도구이다. 이러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나, 해설은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 정의적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육 내용 및 교과서 활용 제재로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문학 교과서 수록시는 기본적으로 시적 이론이나 기교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과 지나치게 교훈적 주제의식이 강조된 것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한 시인의 작품을 편중되게 심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행 학교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에 의존하고,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넓은 의미의 문학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는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안이다. 학습자 중심의 시 지도는 먼저 시의 이해 과정에서 시의 구성요소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작품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이해와 감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과 활동과정을 통한 의미의 재구성으로 교사 중심 주입식 위주의 설명과 지나친 분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수용이론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이 이루어저기 위해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시에 대한 지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사고력을 열어줄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하고 문학 작품이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람직하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시 자체를 충분히 스스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의존한 입시위주의 단순 암기식 수업과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를 읽고 즐겨숨을 음미할 수 있으며, 시적 상상력이나 사고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지도방법의 전환과 함께 문학 작품의 이해 교육을 넘어 표현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교수 - 학습 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재를 매개체로 진행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을 원활하게 해 주는 교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다양한 시 수업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일관적인 자료는 교과서에 수록 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렇게 때문에 교과서에 시가 잘못 선정되었을 때에는 교수 - 학습의 기본 충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 시 작품의 선정에 있어 현 교육현실은 교육적 제재로 선정된 시 작품과 이를 분석하는 이론 범주에 대한 원칙이 전적으로 교과서 편찬자에게 맡겨진다. 곧 교과서 편찬자 관점에 따라서 특정한 시 제재가 선정이 되고 이론이 동원되어 작품이 설명되어 지는 것이다. 결국 학습자들은 문학 교과서 단원 설정의 원칙에 있어서 전적으로 ‘교과서 편찬자의 문학 교육적인 안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자는 좀 더 거시적·수용적인 대도로 깊이 있고 분별 있게 작품을 선정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을 보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 작품들을 편찬자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지나치게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활동과 창의력을 저해한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라는 교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시 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시 해석의 방법을 학생 스스로가 발견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문학 교과서의 시 작품들이 모든 교사와 학습자의 기대에 충족되도록 구성되어 수록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교육부,『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0.
교학사,『문학』 상·하, 김대행 외 6인, 2003.
금성출판사,『문학』 상·하, 박경신 외 3인, 2003.
대한출판사,『문학』 상·하, 오세영 외 7인, 2004.
두산동아,『문학』 상·하, 우현용 외 5인, 2003.
디딤돌,『문학』 상·하, 김윤식 외 4인, 2003.
문원각,『문학』 상·하, 한철우 외 7인, 2003.
민중서림,『문학』 상·하, 김창원 외 3인, 2003.
블랙박스,『문학』 상·하, 한계진 외 4인, 2003.
상문연구사,『문학』 상·하, 강항구 외 4인, 2003.
중앙교육진흥연구소,『문학』 상·하, 조남현 외 4인, 2003.
천재교육,『문학』 상·하, 홍신선 외 2인, 2003.
교육인적자원부,『제 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1998.
교육인적자원부,『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중도서 검정 기준』, 2001

2. 단행본

권혁준,『문학이론과 시 교육』, 박이정, 1997.
김우창,『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박영목·한철우·윤희문 공저『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1997.
윤여탁,『시 교육론』,태학사, 1996.
윤영전,『사정적 진실과 시의 힘』, 창작과 비평사, 2002.

3. 논 문

경규진,『반응중심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영균,『수용미학적 접근을 통한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의식,『현대시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중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주향,『시 교육 방법 연구-상상력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문국희,『시 교육의 기호학적 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철희,『시적 체험과 감수성의 개발』,『고교 국어 교과서 속의詩』,』
소설문학, 1986.
박대홍,『고등학교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유병학, 「시문학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조영수, 「현대시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오세영,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대출판부, 2000.9.
유준욱, 「중·고등학교 현대시 교육의 문제점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윤미영,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8.
정선희, 「현대시 수업 방향에 관한 연구 - 현행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최순열, 「문학 교육론 연구 - 그 이론의 정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최종식, 「시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전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홍정선, 「문학 · 판」, 봄호, 열림원. 2004.
<ABSTRACT>

Issues in Poetry Education of High School and the Improvement Method

- Focusing on the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Kim, Doo-Sa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Hong, Jung-Sun

The purpose of poetry education is to help learners acquire the systematic poetic knowledge, foster sensibility and ingenuity for poetry, and furthermore, autonomously create a poem themselves. Although the current education theory is transforming from a text-based analysis to learner-centered view, poetry education still includes a lot of problems. High schools still stick to a teacher-centered lockstep class in teaching poetry with text analysis and transmission of knowledge, which leads to the lopsided and mechanical learning that depends on the reference materials. In case of a variety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are tried out in teaching poetry, far-strained interpretation, evaluation, or unreasonable limitation of the poet's spirit according to a personal research are another examples of mechanical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problems with the poems quoted in the 7th curriculum 「Literature」 textbooks and issues in the classroom based on 'the practice of high school poetry education' to suggest several effective solutions.

The introduction (Chapter I) reviews the 7th curriculum, th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 few features of literature textbooks followed by the goal of poetry education. Then it outlines some precedent relevant studies.

The subject (chapter II) divides today's practice of high school poetry education into three areas. It also surveys the fundamental direction, features in publishing the 7th curriculum 「Literature」 textbooks, and the same problems of the poems quoted in the textbooks, and the related issues in the classroom.

In addition, the appropriateness in selecting literary works for the textbooks is evaluated, and the problems with those works and teachers' guide books are reviewed.

Chapter III, 'An Effective Improvement Method for Teaching Poetry' goes over the specific improvement method to make up for the problems above. It describes a desirable standard for selecting poems, and a student-centered poetry education model.

Finally, chapter IV summarizes a few issues for the ideal poetry education of the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Given that textbooks take the absolute priority in the educational reali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desirable ways of selecting poems for ideal poetry education. Also, a teacher's role is to be a guide who can lead the learners to autonomously appreciate poems by discovering a various ways of interpretation, not a controller who crams the existing interpretation into the students' head.
It is impossible that every poem in the current 「Literature」 textbooks meets every single teacher's and student's expectations. However, they should be organized so as to cultivate the students' literary attainments and encourage their esthetic experience. To actualize ideal poetry education despite the realities in high schools in which college-preparatory education is still prevail, the publishment of proper textbooks and learner-centered poetry education should be melted together.
- 부록1 - <각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 및 특징</th>
</tr>
</thead>
</table>
| 교학사 | •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  
       • 과정 중심의 문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 |
| 금성출판사 | •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  
       •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교과서  
       • 일상적 문학 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서  
       •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
| 두산 | • 문학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 |
| 디딤돌 | •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의 충실한 구현을 지향한 교과서  
       •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학습을 고려한 교과서  
       • 교수-학습 방법과 과정 중심의 교과서  
       •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과서  
       •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 교과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교과서 |
| 문원각 | • 교수-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교과서  
       • 학습자의 동동적 활동 중심의 교과서  
       •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교과서  
       • 실제적 삶을 반영한 교과서 |
| 민중서림 | • 문학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하는 교과서  
       • 풍부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과서  
       • 변화하는 문학 환경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문학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교과서 |
| 블랙박스 | •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서  
       •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충실한 교과서  
       •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기에 편리한 교과서 |

- 80 -
| 단원연구사 | ·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활동 중심의 교과서  
· 수동적인 이해와 감상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수용과 창작을 강화한 교과서  
· 가치화, 내면화를 통해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교과서  
· 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 교과서 |
| --- | --- |
|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 ·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 자기 주도적,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학습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적절한 교과서  
· 삶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교과서  
· 활동이 다양한 교과서  
· 평가까지 생각한 교과서 |
| 천재교육 | ·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  
· 작품의 수용 활동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한 교과서  
·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한 교과서  
· 문학 문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교과서 |
| 한국교육미디어 | · 제 7차 문학 교육과정의 정신과 지향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과서  
· 문학에 대한 지식, 수행능력, 태도를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을 지향하는 교과서 |
<table>
<thead>
<tr>
<th>작품(작가)</th>
<th>본문</th>
<th>본문 외</th>
</tr>
</thead>
<tbody>
<tr>
<td>가는 길(김소월)</td>
<td>블랙·상 p.123</td>
<td>민중·상 p.366</td>
</tr>
<tr>
<td>가정(이상)</td>
<td>두산·상 p.97</td>
<td></td>
</tr>
<tr>
<td>가울(이상)</td>
<td>케이스·상 p.143</td>
<td></td>
</tr>
<tr>
<td>고풍 의상(조지훈)</td>
<td>천재·하 p.281</td>
<td></td>
</tr>
<tr>
<td>교목(이육사)</td>
<td>상문·하 p.204</td>
<td></td>
</tr>
<tr>
<td>국경의 밖(김동환)</td>
<td>금성·상 p.96</td>
<td></td>
</tr>
<tr>
<td>길(윤동주)</td>
<td>교학·하 p.191</td>
<td></td>
</tr>
<tr>
<td>남은 집(이용악)</td>
<td>교학·하 p.329, 상문·하 p.176</td>
<td></td>
</tr>
<tr>
<td>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상용)</td>
<td>민중·하 p.164, 케이스·하 p.113</td>
<td></td>
</tr>
<tr>
<td>내 마음은(김동명)</td>
<td>상문·상 p.128</td>
<td></td>
</tr>
<tr>
<td>내 마음을 아실 이(김동명)</td>
<td>케이스·상 p.105</td>
<td></td>
</tr>
<tr>
<td>남의 잔묵(한용운)</td>
<td>교학·하 p.188, 금성·하 p.136, 두산·상 p.36, 디딤돌·상 p.166, 민중·하 p.164, 케이스·상 p.113</td>
<td></td>
</tr>
<tr>
<td>당신을 보았습니다(한용운)</td>
<td>금성·하 p.231</td>
<td></td>
</tr>
<tr>
<td>독을 차고(김영랑)</td>
<td>상문·상 p.135</td>
<td></td>
</tr>
<tr>
<td>들픽에 서서(신석정)</td>
<td>중앙·상 p.145</td>
<td></td>
</tr>
<tr>
<td>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td>
<td>금성·하 p.235</td>
<td></td>
</tr>
<tr>
<td>바위(유치환)</td>
<td>문원·상 p.103</td>
<td></td>
</tr>
<tr>
<td>벌 해는 밤(윤동주)</td>
<td>문원·상 p.69, 민중·상 p.314</td>
<td></td>
</tr>
<tr>
<td>불노리(주요한)</td>
<td>금성·하 p.227</td>
<td></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td>
<td>본문 외</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산유화(김소월)</td>
<td>두산, 상 p.62</td>
<td>중앙, 상 p.78, 금성, 상 p.113, 민중, 상 p.326, 상문, 상 p.39</td>
</tr>
<tr>
<td>서시(윤동주)</td>
<td>디딤돌, 상 p.15</td>
<td>중앙, 하 p.348, 교학, 하 p.192, 두산, 하 p.29, 문원, 상 p.26, 민중, 상 p.373, 상문, 상 p.50</td>
</tr>
<tr>
<td>설야(김광균)</td>
<td>교학, 상 p.231</td>
<td>천제하268</td>
</tr>
<tr>
<td>성호부근(김광균)</td>
<td>문원, 상 p.83</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 케이스, 상 p.67</td>
</tr>
<tr>
<td>쉽게 쓴어진 시(윤동주)</td>
<td>중앙, 하 p.173</td>
<td>두산, 하 p.213, 디딤돌, 상 p.327, 문원, 하 p.294, 민중, 상 p.72</td>
</tr>
<tr>
<td>승무(조지훈)</td>
<td>금성, 상 p.100</td>
<td>두산, 하 p.219, 금성, 상 p.158</td>
</tr>
<tr>
<td>심자가(윤동주)</td>
<td>상문, 하 p.259, 케이스, 상 p.126</td>
<td>중앙, 하 p.219, 금성, 상 p.158</td>
</tr>
<tr>
<td>여승(백석)</td>
<td>케이스, 상 p.129</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여우난곶족(백석)</td>
<td>중앙, 하 p.169, 교학, 상 p.55, 민중, 상 p.274</td>
<td>두산, 하 p.219, 금성, 상 p.158</td>
</tr>
<tr>
<td>오감도(이상)</td>
<td>디딤돌, 하 p.331</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우리나라 가까운 항구에서 (이용악)</td>
<td>두산, 상 p.89</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우리 오빠와 화로(임화)</td>
<td>디딤돌, 하 p.232</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우리 집(주요한)</td>
<td>두산, 하 p.158</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운동(이상)</td>
<td>블랙, 하 p.55</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김동새(김소월)</td>
<td>케이스, 하 p.201</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참회록(윤동주)</td>
<td>블랙, 상 p.76, 천재, 상 p.111</td>
<td>두산, 하 p.214, 디딤돌, 상 p.129, 민중, 상 p.318</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td>
<td>본문 외</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추일 서정(김광균)</td>
<td>디딤돌・상 p.169</td>
<td>중앙・상 p.127, 두산・하 p.303, 문원・상 p.81, 상문・상 p.124</td>
</tr>
<tr>
<td>타고르의 시 &lt;Gardenisto&gt;를 읽고(한용운)</td>
<td>블랙・하 p.268</td>
<td></td>
</tr>
<tr>
<td>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 다(이용약)</td>
<td>천재・하 p.330</td>
<td></td>
</tr>
<tr>
<td>향수(정지용)</td>
<td>교학・하 p.56, 디딤돌・상 p.184, 문원・상 p.87, 상문・상 p.126, 블랙・상 p.126, 케이스・상 p.138,</td>
<td></td>
</tr>
</tbody>
</table>

광복 이후

<table>
<thead>
<tr>
<th>작품(작가)</th>
<th>본문</th>
<th>본문 외</th>
</tr>
</thead>
<tbody>
<tr>
<td>가을의 기도(김현승)</td>
<td>블랙・하 p.271</td>
<td>금성・하 p.217, 디딤돌・상 p.198, 민중・상 p.66</td>
</tr>
<tr>
<td>전우의 노래(서정주)</td>
<td>교학・하 p.24</td>
<td></td>
</tr>
<tr>
<td>구두(송찬호)</td>
<td>교학・하 p.310</td>
<td></td>
</tr>
<tr>
<td>그대들 돌아오시나(정지용)</td>
<td>두산・하 p.190</td>
<td></td>
</tr>
<tr>
<td>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 (이해인)</td>
<td>금성・상 p.149</td>
<td></td>
</tr>
<tr>
<td>꿈(김춘수)</td>
<td>중앙・하 p.214, 교학・하 p.287, 금성・상 p.143, 문원・하 p.299,</td>
<td></td>
</tr>
<tr>
<td>꽃범(신덕경)</td>
<td></td>
<td></td>
</tr>
<tr>
<td>나그네(박목월)</td>
<td>디딤돌・상 p.136</td>
<td>금성하60 민중상61 블랙상32 케이스상74</td>
</tr>
<tr>
<td>남산의 주 유동 박사봉방(박석)</td>
<td>두산・하 p.174, 상문・하 p.260</td>
<td>천재・상 p.36</td>
</tr>
<tr>
<td>남작남작-박수근 화범을 위하여(김혜순)</td>
<td>천재・하 p.308</td>
<td></td>
</tr>
<tr>
<td>너를 기다리는 동안(황지우)</td>
<td>민중・하 p.228</td>
<td></td>
</tr>
<tr>
<td>너에게(신동엽)</td>
<td>중앙・하 p.217</td>
<td></td>
</tr>
<tr>
<td>농무(신경림)</td>
<td>금성・상 p.124</td>
<td>중앙・하 p.209, 디딤돌・하 p.316, 문원・상 p.61, 블랙・하 p.206</td>
</tr>
<tr>
<td>두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가(신동엽)</td>
<td>두산・하 p.246</td>
<td></td>
</tr>
<tr>
<td>눈(김수영)</td>
<td>교학・상 p.230, 문원・상 p.59, 블랙・상 p.185, 상문・하 p.266,</td>
<td>문원・하 p.18, 민중・상 p.45</td>
</tr>
<tr>
<td>눈물(김현승)</td>
<td>교학・상 p.133, 문원・하 p.263</td>
<td>두산・상 p.243</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td>
<td>본문 외</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다툼원에서(조지훈)</td>
<td>두산・하 p.221</td>
<td></td>
</tr>
<tr>
<td>동천(서정주)</td>
<td>중앙・하 p.211, 금성・하 p.296</td>
<td></td>
</tr>
<tr>
<td>또 기다리는 편지(정호승)</td>
<td>블랙・하 p.295</td>
<td></td>
</tr>
<tr>
<td>미술 대결이(고은)</td>
<td>디딤돌・하 p.356, 천재・하 p.263</td>
<td></td>
</tr>
<tr>
<td>멸리 있는 무덤(김영태)</td>
<td>블랙・하 p.62</td>
<td></td>
</tr>
<tr>
<td>목재 장타(신경림)</td>
<td>문원・하 p.217, 케이스・상 p.107</td>
<td></td>
</tr>
<tr>
<td>목마와 숙녀(박인환)</td>
<td>민중・상 p.296</td>
<td></td>
</tr>
<tr>
<td>사향역에서(곽재구)</td>
<td>블랙・상 p.237, 중앙・상 p.253, 민중・상 p.270</td>
<td></td>
</tr>
<tr>
<td>산(김광섭)</td>
<td>두산・하 p.268, 디딤돌・상 p.165</td>
<td></td>
</tr>
<tr>
<td>산문에 기대어(송수권)</td>
<td>블랙・상 p.38</td>
<td></td>
</tr>
<tr>
<td>삶아 있는 날은(이혜인)</td>
<td>교학・상 p.191</td>
<td></td>
</tr>
<tr>
<td>상행(김광규)</td>
<td>두산・상 p.109</td>
<td></td>
</tr>
<tr>
<td>새들도 세상을 또는구나 (황지우)</td>
<td>중앙・상 p.252, 디딤돌・하 p.277, 블랙・상 p.44, 천재・하 p.231</td>
<td></td>
</tr>
<tr>
<td>새벽 1(정한모)</td>
<td>두산・상 p.99</td>
<td></td>
</tr>
<tr>
<td>생(유하)</td>
<td>옥현・하 p.152</td>
<td></td>
</tr>
<tr>
<td>설야(김광균)</td>
<td>문원・상 p.121</td>
<td></td>
</tr>
<tr>
<td>섬진강 1(김용택)</td>
<td>민중・하 p.232, 문원・하 p.357</td>
<td></td>
</tr>
<tr>
<td>성씨(고은)</td>
<td>교학・하 p.342</td>
<td></td>
</tr>
<tr>
<td>성애꽃(최두석)</td>
<td>교학・상 p.14</td>
<td></td>
</tr>
<tr>
<td>식목제(기형도)</td>
<td>두산・하 p.282</td>
<td></td>
</tr>
<tr>
<td>신부(서정주)</td>
<td>문원・상 p.74, 천재・상 p.64</td>
<td></td>
</tr>
<tr>
<td>아침 이미지(박남수)</td>
<td>금성・상 p.158, 두산・상 p.102, 문원・상 p.90, 민중・상 p.23</td>
<td></td>
</tr>
<tr>
<td>어서 너는 오녀아(박두진)</td>
<td>금성・하 p.293, 디딤돌・상 p.181, 케이스・하 p.244</td>
<td></td>
</tr>
<tr>
<td>오랜지(신동집)</td>
<td>천재・상 p.79, 교학・상 p.227</td>
<td></td>
</tr>
<tr>
<td>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몰고(도종환)</td>
<td>상문・하 p.84</td>
<td></td>
</tr>
<tr>
<td>우리가 몰이 되어(강은교)</td>
<td>교학・하 p.249, 디딤돌・상 p.125, 문원・상 p.99</td>
<td></td>
</tr>
<tr>
<td>이 가문 날에 비구름(김지하)</td>
<td>블랙・하 p.43</td>
<td></td>
</tr>
<tr>
<td>자수(하영자)</td>
<td>교학・상 p.66</td>
<td></td>
</tr>
<tr>
<td>작품(작가)</td>
<td>분문</td>
<td>본문 외</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저문 강애 삼을 셋고(정회성)</td>
<td>문원. 하 p.363</td>
<td>블랙. 상 p.229</td>
</tr>
<tr>
<td>정념의 기(김남조)</td>
<td>천재. 상 p.101</td>
<td></td>
</tr>
<tr>
<td>조그만 사랑 노래(황동규)</td>
<td>중앙. 하 p.220</td>
<td>문원. 상 p.22, 케이스. 상 p.29</td>
</tr>
<tr>
<td>청노루(박목월)</td>
<td>상문. 상 p.119</td>
<td>교학. 하 p.219, 금성. 상 p.88, 문원. 상 p.93, 케이스. 상 p.48</td>
</tr>
<tr>
<td>청산도(박두진)</td>
<td>교학. 하 p.218, 천재. 상 p.97</td>
<td></td>
</tr>
<tr>
<td>초도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구상)</td>
<td>상문. 하 p.246, 천재. 하 p.200</td>
<td>두산. 하 p.304, 디딤돌. 하 p.315</td>
</tr>
<tr>
<td>추억에서(박재삼)</td>
<td>두산. 하 p.266, 디딤돌. 상 p.193, 케이스. 하 p.278</td>
<td>문원. 하 p.276</td>
</tr>
<tr>
<td>천향 유문(서정주)</td>
<td>케이스. 상 p.116</td>
<td>금성. 상 p.131, 투산. 상 p.320</td>
</tr>
<tr>
<td>괴랑새(한하운)</td>
<td>민중. 상 p.81</td>
<td></td>
</tr>
<tr>
<td>폭포(김수영)</td>
<td>디딤돌. 하 p.274</td>
<td>중앙. 상 p.165</td>
</tr>
<tr>
<td>폴(김수영)</td>
<td>금성. 하 p.299, 민중. 하 p.200, 케이스. 하 p.276</td>
<td>중앙. 상 p.86, 두산. 상 p.120, 문원. 상 p.81</td>
</tr>
<tr>
<td>프란츠 카프카(오규원)</td>
<td>천재. 하 p.304</td>
<td></td>
</tr>
<tr>
<td>하숙(장정일)</td>
<td>천재. 하 p.304</td>
<td></td>
</tr>
<tr>
<td>한계(천양희)</td>
<td>상문. 하 p.151</td>
<td></td>
</tr>
<tr>
<td>해(박두진)</td>
<td>두산. 상 p.73</td>
<td>중앙. 상 p.14, 금성. 상 p.159, 문원. 상 p.73, 블랙. 상 p.227</td>
</tr>
<tr>
<td>해바라기의 비명-청년 화가 L을 위하여(함형수)</td>
<td>교학. 상 p.190</td>
<td>문원상107 블랙상111</td>
</tr>
<tr>
<td>휘진선(박봉우)</td>
<td>상문. 하 p.246, 케이스. 하 p.246</td>
<td>두산. 상 p.30, 문원. 하 p.342</td>
</tr>
<tr>
<td>회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김광규)</td>
<td>민중. 하 p.228</td>
<td>케이스. 하 p.304</td>
</tr>
<tr>
<td>작품(작가)</td>
<td>분문 외</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 근대화 시기-</td>
<td></td>
<td></td>
</tr>
<tr>
<td>가교과(이은상)</td>
<td>민중・하 p.21</td>
<td></td>
</tr>
<tr>
<td>가라, 군기 아래로, 어버이들을 대신해서(김철봉)</td>
<td>상문・하 p.263</td>
<td></td>
</tr>
<tr>
<td>고향(정지용)</td>
<td>중앙・하 p.172, 두산・하 p.22</td>
<td></td>
</tr>
<tr>
<td>고향(백석)</td>
<td>케이스・상 p.25</td>
<td></td>
</tr>
<tr>
<td>고양 앞에서(오장원)</td>
<td>케이스・상 p.142</td>
<td></td>
</tr>
<tr>
<td>국수(백석)</td>
<td>상문・하 p.22</td>
<td></td>
</tr>
<tr>
<td>귀촉도(서정주)</td>
<td>금성・상 p.120</td>
<td></td>
</tr>
<tr>
<td>그 날이 오면(심훈)</td>
<td>중앙・상 p.312, 교학・상 p.164, 두산・하 p.209</td>
<td></td>
</tr>
<tr>
<td>그 먼 나라를 알고싶니까 (신석정)</td>
<td>중앙・상 p.19, 케이스・하 p.233</td>
<td></td>
</tr>
<tr>
<td>나뭇배와 행인(한용운)</td>
<td>중앙・하 p.19, 두산・상 p.14</td>
<td></td>
</tr>
<tr>
<td>나의 침실로(이상화)</td>
<td>금성・상 p.133</td>
<td></td>
</tr>
<tr>
<td>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김영랑)</td>
<td>금성・상 p.346</td>
<td></td>
</tr>
<tr>
<td>난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김용제)</td>
<td>상문・상 p.36, 민중・상 p.22</td>
<td></td>
</tr>
<tr>
<td>달·포도·일상귀(장만영)</td>
<td>교학・상 p.164, 두산・하 p.309, 디딤돌・하 p.337</td>
<td></td>
</tr>
<tr>
<td>담자갈 때마다(이영락)</td>
<td>상문・상 p.69, 상문・상 p.67</td>
<td></td>
</tr>
<tr>
<td>민 후일(김광섭)</td>
<td>민중・상 p.68</td>
<td></td>
</tr>
<tr>
<td>묘지방(박두진)</td>
<td>민중・상 p.369</td>
<td></td>
</tr>
<tr>
<td>바다(정지용)</td>
<td>금성・상 p.55</td>
<td></td>
</tr>
<tr>
<td>바다와 나비(김기림)</td>
<td>중앙・상 p.156, 금성・상 p.157, 두산・상 p.330</td>
<td></td>
</tr>
<tr>
<td>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습대일 땅이 있었으면(김철봉)</td>
<td>금성・하 p.16</td>
<td></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 외</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작품(한용운)</td>
<td>두산·상 p.332</td>
<td></td>
</tr>
<tr>
<td>봄은 고양이로다(이장희)</td>
<td>블랙·하 p.275, 천재·상 p.47</td>
<td></td>
</tr>
<tr>
<td>북(김영량)</td>
<td>중앙·상 p.72</td>
<td></td>
</tr>
<tr>
<td>북청 불장수(김동환)</td>
<td>케이스·상 p.150</td>
<td></td>
</tr>
<tr>
<td>비(정지용)</td>
<td>중앙·상 p.21</td>
<td></td>
</tr>
<tr>
<td>사슴(노천명)</td>
<td>교학·상 p.40</td>
<td></td>
</tr>
<tr>
<td>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td>
<td>급성·상 p.99, 디딤돌·상 p.176, 민중·하 p.66</td>
<td></td>
</tr>
<tr>
<td>삼물리 혼자서(주요한)</td>
<td>중앙·상 p.173, 민중·하 p.273</td>
<td></td>
</tr>
<tr>
<td>생명의 서(유치환)</td>
<td>디딤돌·상 p.63</td>
<td></td>
</tr>
<tr>
<td>아우의 인상화(윤동주)</td>
<td>문원·상 p.94</td>
<td></td>
</tr>
<tr>
<td>알 수 없어요(한용운)</td>
<td>중앙·상 p.137, 블랙·상 p.131, 천재·상 p.123</td>
<td></td>
</tr>
<tr>
<td>어느 지류에 서서(신석정)</td>
<td>디딤돌·상 p.231, 민중·상 p.36, 천재·하 p.26</td>
<td></td>
</tr>
<tr>
<td>오래된(이문창)</td>
<td>중앙·상 p.136</td>
<td></td>
</tr>
<tr>
<td>오래 된풍 돌랫대(김영량)</td>
<td>문원·상 p.264</td>
<td></td>
</tr>
<tr>
<td>와사등(김광균)</td>
<td>발산·하 p.16</td>
<td></td>
</tr>
<tr>
<td>황심리(김동환)</td>
<td>천재·상 p.203</td>
<td></td>
</tr>
<tr>
<td>왜인존(김광균)</td>
<td>급성·상 p.111, 민중·상 p.75, 케이스·하 p.26</td>
<td></td>
</tr>
<tr>
<td>오은(김동환)</td>
<td>발산·상 p.316</td>
<td></td>
</tr>
<tr>
<td>유리창 1(정지용)</td>
<td>중앙·상 p.114, 급성·하 p.346, 두산·상 p.122</td>
<td></td>
</tr>
<tr>
<td>은수재(김광균)</td>
<td>민중·상 p.362</td>
<td></td>
</tr>
<tr>
<td>일월(유치환)</td>
<td>민중·하 p.263</td>
<td></td>
</tr>
<tr>
<td>임께서 부르시면(신석정)</td>
<td>디딤돌·상 p.168, 문원·상 p.53, 천재·하 p.26</td>
<td></td>
</tr>
<tr>
<td>자화상(윤동주)</td>
<td>민중·상 p.211</td>
<td></td>
</tr>
<tr>
<td>장수산 1(정지용)</td>
<td>급성·상 p.156</td>
<td></td>
</tr>
<tr>
<td>전라도 가시내(이문창)</td>
<td>민중·하 p.186</td>
<td></td>
</tr>
<tr>
<td>지상의 시(임화)</td>
<td>민중·상 p.362</td>
<td></td>
</tr>
<tr>
<td>진달래꽃(김소월)</td>
<td>디딤돌·상 p.99, 민중·하 p.252</td>
<td></td>
</tr>
<tr>
<td>삼수갑산-차안서 선생 삼수갑산운(김소월)</td>
<td>천재·하 p.317, 케이스·상 p.43</td>
<td></td>
</tr>
<tr>
<td>삼수갑산-차안서 선생 삼수갑산운(김소월)</td>
<td>중앙·하 p.254, 두산·하 p.313</td>
<td></td>
</tr>
<tr>
<td>삼수갑산-차안서 선생 삼수갑산운(김소월)</td>
<td>디딤돌·상 p.43, 문원·하 p.273</td>
<td></td>
</tr>
<tr>
<td>장포도(이화)</td>
<td>두산·하 p.27, 디딤돌·상 p.95</td>
<td></td>
</tr>
<tr>
<td>가방(김동일)</td>
<td>민중·하 p.42</td>
<td></td>
</tr>
<tr>
<td>과초(김동일)</td>
<td>중앙·상 p.62</td>
<td></td>
</tr>
<tr>
<td>광복 이후</td>
<td></td>
<td></td>
</tr>
<tr>
<td>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td>
<td>두산·하 p.18, 문원·하 p.361</td>
<td></td>
</tr>
<tr>
<td>가율비(도중환)</td>
<td>케이스·상 p.97</td>
<td></td>
</tr>
<tr>
<td>가율 서정(인터넷 작품)</td>
<td>디딤돌·하 p.56</td>
<td></td>
</tr>
<tr>
<td>가율의 별(양소연)</td>
<td>급성·상 p.161</td>
<td></td>
</tr>
<tr>
<td>강(김동일)</td>
<td>급성·상 p.49</td>
<td></td>
</tr>
<tr>
<td>장강불래(이동주)</td>
<td>천재·상 p.122</td>
<td></td>
</tr>
<tr>
<td>강원도의 돌(마중기)</td>
<td>두산·하 p.23</td>
<td></td>
</tr>
<tr>
<td>거울 공화국(양성우)</td>
<td>민중·하 p.35</td>
<td></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 외</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겨울밤(박용래)</td>
<td>두산・상 p.55</td>
<td></td>
</tr>
<tr>
<td>고향의 감나무(김철-중국 조선족 작가)</td>
<td>교학・하 p.103 금성・하 p.50</td>
<td></td>
</tr>
<tr>
<td>공사장 끝에서(이시영)</td>
<td>문원・하 p.362</td>
<td></td>
</tr>
<tr>
<td>구름과 바람의 길(이성선)</td>
<td>두산・상 p.322</td>
<td></td>
</tr>
<tr>
<td>국제 열차는 타자기처럼 (김경린)</td>
<td>민중・하 p.25</td>
<td></td>
</tr>
<tr>
<td>국화 옆에서(서정주)</td>
<td>중앙・하 p.17, 두산・상 p.116, 민중・하 p.328 상문・상 p.60</td>
<td></td>
</tr>
<tr>
<td>귀뚜라미 울음-수유리에서 (민영)</td>
<td>민중・상 p.57</td>
<td></td>
</tr>
<tr>
<td>그 노인이 지은 집(길상호)</td>
<td>민중・하 p.371</td>
<td></td>
</tr>
<tr>
<td>그대는 별인가-시인을 위하 여(정현종)</td>
<td>민중・상 p.326</td>
<td></td>
</tr>
<tr>
<td>그림 1(오세영)</td>
<td>중앙・상 p.133, 케이스・하 p.280</td>
<td></td>
</tr>
<tr>
<td>그리움(이용악)</td>
<td>케이스・상 p.155</td>
<td></td>
</tr>
<tr>
<td>금강(신동엽)</td>
<td>민중・상 p.67</td>
<td></td>
</tr>
<tr>
<td>금정적인 법(함민복)</td>
<td>금성・하 p.318</td>
<td></td>
</tr>
<tr>
<td>길(조명화)</td>
<td>두산・상 p.322</td>
<td></td>
</tr>
<tr>
<td>길(정희성)</td>
<td>민중・상 p.223</td>
<td></td>
</tr>
<tr>
<td>길(정희성)</td>
<td>민중・상 p.223</td>
<td></td>
</tr>
<tr>
<td>길(정희성)</td>
<td>금성・하 p.50, 두산・상 p.50</td>
<td></td>
</tr>
<tr>
<td>금강(신동엽)</td>
<td>민중・상 p.67</td>
<td></td>
</tr>
<tr>
<td>그리움(이용악)</td>
<td>케이스・상 p.155</td>
<td></td>
</tr>
<tr>
<td>그 노인이 지은 집(길상호)</td>
<td>민중・하 p.371</td>
<td></td>
</tr>
<tr>
<td>그대는 별인가-시인을 위하 여(정현종)</td>
<td>민중・상 p.326</td>
<td></td>
</tr>
<tr>
<td>그림 1(오세영)</td>
<td>중앙・상 p.133, 케이스・하 p.280</td>
<td></td>
</tr>
<tr>
<td>그리움(이용악)</td>
<td>케이스・상 p.155</td>
<td></td>
</tr>
<tr>
<td>금강(신동엽)</td>
<td>민중・상 p.67</td>
<td></td>
</tr>
<tr>
<td>금정적인 법(함민복)</td>
<td>금성・하 p.318</td>
<td></td>
</tr>
<tr>
<td>길(조명화)</td>
<td>두산・상 p.322</td>
<td></td>
</tr>
<tr>
<td>길(정희성)</td>
<td>민중・상 p.223</td>
<td></td>
</tr>
<tr>
<td>길(정희성)</td>
<td>지부심 석인에게(김유진) 상문・상 p.78 케이스・상 p.76</td>
<td></td>
</tr>
<tr>
<td>쿠(박상균)</td>
<td>블랙・상 p.79</td>
<td></td>
</tr>
<tr>
<td>꽃을 위한 서사(김춘수)</td>
<td>중앙・상 p.129, 교학・상 p.226, 문원・하 p.311</td>
<td></td>
</tr>
<tr>
<td>꽃잎 절구(신석초)</td>
<td>두산・상 p.64</td>
<td></td>
</tr>
<tr>
<td>나는 나의 시가(김남주)</td>
<td>중앙・하 p.340</td>
<td></td>
</tr>
<tr>
<td>나는 바퀴를 보면 싶어진다(황동규)</td>
<td>민중・상 p.26</td>
<td></td>
</tr>
<tr>
<td>나무(장세연)</td>
<td>중앙・상 p.161</td>
<td></td>
</tr>
<tr>
<td>나무(박복야)</td>
<td>천재・상 p.14</td>
<td></td>
</tr>
<tr>
<td>나무(이형기)</td>
<td>천재・상 p.21</td>
<td></td>
</tr>
<tr>
<td>나비와 꽃(김규동)</td>
<td>케이스・하 p.266</td>
<td></td>
</tr>
<tr>
<td>나비와 창조(박봉우)</td>
<td>교학・하 p.67</td>
<td></td>
</tr>
<tr>
<td>나비의 여행(정한모)</td>
<td>중앙・상 p.92, 금성・하 p.50, 문원・상 p.108</td>
<td></td>
</tr>
<tr>
<td>나의 하느님(김춘수)</td>
<td>천재・상 p.120</td>
<td></td>
</tr>
<tr>
<td>답답한 바리모(최용춘) (조병화)</td>
<td>교학・하 p.60</td>
<td></td>
</tr>
<tr>
<td>남은 우물이 있는 풍경(김중학)</td>
<td>천재・하 p.363</td>
<td></td>
</tr>
<tr>
<td>내게 묻는다(안훈은)</td>
<td>문원・상 p.45, 상문・상 p.142</td>
<td></td>
</tr>
<tr>
<td>노래와 이야기(최두석)</td>
<td>케이스・상 p.104</td>
<td></td>
</tr>
<tr>
<td>두님(김광섭)</td>
<td>두산・하 p.356</td>
<td></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 외</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눈길(고운)</td>
<td>문원・상 p.64</td>
<td></td>
</tr>
<tr>
<td>눈 오는 밤에(김용호)</td>
<td>문원・하 p.272</td>
<td></td>
</tr>
<tr>
<td>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인터넷 작품)</td>
<td>디딤돌・하 p.343</td>
<td></td>
</tr>
<tr>
<td>돌길(도중환)</td>
<td>민중・상 p.325</td>
<td></td>
</tr>
<tr>
<td>또 하나의 길(안도현)</td>
<td>중앙・상 p.159</td>
<td></td>
</tr>
<tr>
<td>라디오와 같이 사람을 끄고 길 수 있다면(강정일)</td>
<td>중앙・하 p.216, 문원・하 p.301, 케이스・상 p.84</td>
<td></td>
</tr>
<tr>
<td>메미 올음에(박재상)</td>
<td>두산・상 p.102</td>
<td></td>
</tr>
<tr>
<td>모닥불(안도현)</td>
<td>민중・하 p.253</td>
<td></td>
</tr>
<tr>
<td>무등(황지우)</td>
<td>민중・상 p.73</td>
<td></td>
</tr>
<tr>
<td>목화(김종삼)</td>
<td>교학・상 p.286</td>
<td></td>
</tr>
<tr>
<td>몸의 노래 1(이동순)</td>
<td>문원・하 p.365</td>
<td></td>
</tr>
<tr>
<td>물통(김종삼)</td>
<td>천재・상 p.32</td>
<td></td>
</tr>
<tr>
<td>바라춤(신석초)</td>
<td>케이스・하 p.142</td>
<td></td>
</tr>
<tr>
<td>바람(장정일)</td>
<td>문원・하 p.301, 케이스・상 p.84</td>
<td></td>
</tr>
<tr>
<td>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간다(유하)</td>
<td>민중・하 p.226</td>
<td></td>
</tr>
<tr>
<td>바람의 집-겨울 판화 1(기형도)</td>
<td>교학・상 p.72</td>
<td></td>
</tr>
<tr>
<td>반길(박남수)</td>
<td>천재・상 p.105</td>
<td></td>
</tr>
<tr>
<td>벼(이성부)</td>
<td>디딤돌・하 p.373</td>
<td></td>
</tr>
<tr>
<td>보리피리(한하운)</td>
<td>문원・상 p.78</td>
<td></td>
</tr>
<tr>
<td>불(이성부)</td>
<td></td>
<td></td>
</tr>
<tr>
<td>불멸(강동주)</td>
<td>생물・상 p.23</td>
<td></td>
</tr>
<tr>
<td>불비(이동순)</td>
<td>중앙・상 p.106</td>
<td></td>
</tr>
<tr>
<td>불비(이수복)</td>
<td>디딤돌・하 p.36, 문원・하 p.87</td>
<td></td>
</tr>
<tr>
<td>불황수(조지훈)</td>
<td>교학・상 p.43, 두산・상 p.113, 디딤돌・상 p.202</td>
<td></td>
</tr>
<tr>
<td>불국사(박목월)</td>
<td>생물・상 p.88</td>
<td></td>
</tr>
<tr>
<td>민 집(기형도)</td>
<td>민중・하 p.253</td>
<td></td>
</tr>
<tr>
<td>사랑(안도현)</td>
<td>교학・상 p.265</td>
<td></td>
</tr>
<tr>
<td>사랑 1(김남주)</td>
<td>문원・상 p.62</td>
<td></td>
</tr>
<tr>
<td>사이(바막규)</td>
<td>교학・상 p.239</td>
<td></td>
</tr>
<tr>
<td>산도화(박목월)</td>
<td>민중・상 p.16</td>
<td></td>
</tr>
<tr>
<td>산 더머 저쪽(이문구)</td>
<td>문원・상 p.17</td>
<td></td>
</tr>
<tr>
<td>산애 언덕에(신동엽)</td>
<td>디딤돌・상 p.176</td>
<td></td>
</tr>
<tr>
<td>새(박남수)</td>
<td>상문・상 p.71</td>
<td></td>
</tr>
<tr>
<td>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td>
<td>불책・하 p.93</td>
<td></td>
</tr>
<tr>
<td>서쪽(김남주)</td>
<td>금성・상 p.156</td>
<td></td>
</tr>
<tr>
<td>서울령(김광규)</td>
<td>디딤돌・하 p.34</td>
<td></td>
</tr>
<tr>
<td>서천천(조태일)</td>
<td>금성・상 p.324</td>
<td></td>
</tr>
<tr>
<td>서남쪽(서정주)</td>
<td>디딤돌・상 p.88</td>
<td></td>
</tr>
<tr>
<td>서상의 노래(김관식)</td>
<td>민중・상 p.68</td>
<td></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 외</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선운사에서(최영미)</td>
<td>중앙・상 p.174</td>
<td></td>
</tr>
<tr>
<td>설일(김남조)</td>
<td>중앙・상 p.132, 상문・하 p.153, 케이스・상 p.153</td>
<td></td>
</tr>
<tr>
<td>설(정현종)</td>
<td>교학・상 p.239, 민중・하 p.360, 천재・상 p.50</td>
<td></td>
</tr>
<tr>
<td>성북동 비둘기(김광섭)</td>
<td>두산・상 p.121, 민중・하 p.216, 상문・상 p.79, 천재・하 p.313, 케이스・상 p.76</td>
<td></td>
</tr>
<tr>
<td>성단제(김종길)</td>
<td>상문・상 p.96, 케이스・상 p.289</td>
<td></td>
</tr>
<tr>
<td>주로 부인의 얼굴(서정주)</td>
<td>두산・하 p.88</td>
<td></td>
</tr>
<tr>
<td>수정가(박재삼)</td>
<td>민중・하 p.45, 상문・상 p.35</td>
<td></td>
</tr>
<tr>
<td>술래잡기(김종삼)</td>
<td>케이스・상 p.20</td>
<td></td>
</tr>
<tr>
<td>술(강은교)</td>
<td>천재・상 p.27</td>
<td></td>
</tr>
<tr>
<td>술enames기름에게(정호승)</td>
<td>중앙・하 p.30, 문원・상 p.335</td>
<td></td>
</tr>
<tr>
<td>시인 구보 씨의 일일 1(오규원)</td>
<td>천재・하 p.184</td>
<td></td>
</tr>
<tr>
<td>신혼 일기(박노해)</td>
<td>민중・하 p.31</td>
<td></td>
</tr>
<tr>
<td>아빠와 함께 한 크리스마스</td>
<td>학생 작품</td>
<td></td>
</tr>
<tr>
<td>아침(최명관)</td>
<td>두산・하 p.375</td>
<td></td>
</tr>
<tr>
<td>야초(김대규)</td>
<td>천재・하 p.336</td>
<td></td>
</tr>
<tr>
<td>어머니,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김진주)</td>
<td>민중・하 p.369</td>
<td></td>
</tr>
<tr>
<td>어머님의 손을 놓고(이강영)</td>
<td>중앙・상 p.171</td>
<td></td>
</tr>
<tr>
<td>염마 걱정(기형도)</td>
<td>교학・상 p.287, 상문・상 p.21, 케이스・상 p.21</td>
<td></td>
</tr>
<tr>
<td>염마야 누나야(김소월)</td>
<td>두산・상 p.175</td>
<td></td>
</tr>
<tr>
<td>염(안도현)</td>
<td>금성・상 p.39</td>
<td></td>
</tr>
<tr>
<td>염한상(안도현)</td>
<td>케이스・상 p.91</td>
<td></td>
</tr>
<tr>
<td>오귀스트 르네 로댕에게(이건청)</td>
<td>블랙・하 p.66</td>
<td></td>
</tr>
<tr>
<td>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이혜인)</td>
<td>문원・하 p.265</td>
<td></td>
</tr>
<tr>
<td>오 분간(나희덕)</td>
<td>민중・상 p.230</td>
<td></td>
</tr>
<tr>
<td>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강명희)</td>
<td>민중・하 p.342</td>
<td></td>
</tr>
<tr>
<td>완화삼(조지훈)</td>
<td>두산・상 p.142</td>
<td></td>
</tr>
<tr>
<td>우리가 눈발이라면(안도현)</td>
<td>두산・상 p.164</td>
<td></td>
</tr>
<tr>
<td>월문(박용래)</td>
<td>문원・하 p.110</td>
<td></td>
</tr>
<tr>
<td>유월(김남호)</td>
<td>중앙・상 p.168</td>
<td></td>
</tr>
<tr>
<td>유월(박태일)</td>
<td>중앙・상 p.124</td>
<td></td>
</tr>
<tr>
<td>은행나무(박재규)</td>
<td>민중・상 p.76</td>
<td></td>
</tr>
<tr>
<td>의자 7(조명화)</td>
<td>케이스・하 p.29</td>
<td></td>
</tr>
<tr>
<td>이별가(박목월)</td>
<td>문원・상 p.57</td>
<td></td>
</tr>
<tr>
<td>이별 노래(정호승)</td>
<td>중앙・하 p.222</td>
<td></td>
</tr>
<tr>
<td>이별이란(신진호)</td>
<td>민중・하 p.47</td>
<td></td>
</tr>
<tr>
<td>작품(작가)</td>
<td>본문 외</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이 사진 앞에서(이승하)</td>
<td>교학・하 p.55</td>
<td></td>
</tr>
<tr>
<td>이중섭 2(김춘수)</td>
<td>중앙・하 p.321</td>
<td></td>
</tr>
<tr>
<td>자화상(서정주)</td>
<td>민중・상 p.211</td>
<td></td>
</tr>
<tr>
<td>자화상(고형렬)</td>
<td>민중・상 p.213</td>
<td></td>
</tr>
<tr>
<td>저녁 눈(박용례)</td>
<td>중앙・상 p.109 디딤돌・하 p.118 상문・상 p.139</td>
<td></td>
</tr>
<tr>
<td>저녁에(김광섭)</td>
<td>두산・상 p.42 디딤돌・하 p.46</td>
<td></td>
</tr>
<tr>
<td>저막(오세영)</td>
<td>문원・상 p.101</td>
<td></td>
</tr>
<tr>
<td>잠은 손수 운전자에게(김광if)</td>
<td>두산・상 p.330</td>
<td></td>
</tr>
<tr>
<td>종 소리(박남수)</td>
<td>중앙・상 p.137</td>
<td></td>
</tr>
<tr>
<td>줄거운 편지(황동규)</td>
<td>민중・상 p.78</td>
<td></td>
</tr>
<tr>
<td>작년에게(문병란)</td>
<td>문원・상 p.54</td>
<td></td>
</tr>
<tr>
<td>진이의 노래(조예린)</td>
<td>중앙・상 p.100</td>
<td></td>
</tr>
<tr>
<td>잠대를 뻗면서(김춘태)</td>
<td>블랙・상 p.179</td>
<td></td>
</tr>
<tr>
<td>채석상에서(유종순)</td>
<td>중앙・상 p.123</td>
<td></td>
</tr>
<tr>
<td>정출 그늘에 앉아(이제하)</td>
<td>케이스・상 p.61</td>
<td></td>
</tr>
<tr>
<td>춘윤(유치환)</td>
<td>중앙・상 p.164</td>
<td></td>
</tr>
<tr>
<td>텔레비전 1(박남철)</td>
<td>민중・하 p.17</td>
<td></td>
</tr>
<tr>
<td>과정(신경림)</td>
<td>교학・상 p.127</td>
<td></td>
</tr>
<tr>
<td>포도알(학생 작품)</td>
<td>교학・상 p.289</td>
<td></td>
</tr>
<tr>
<td>폭포(이형기)</td>
<td>중앙・상 p.125</td>
<td></td>
</tr>
<tr>
<td>폭풍(정호승)</td>
<td>교학・상 p.116</td>
<td></td>
</tr>
<tr>
<td>부른 하늘을(김수영)</td>
<td>두산・하 p.263 민중・상 p.377 케이스・상 p.122</td>
<td></td>
</tr>
<tr>
<td>볼일 단장(조지훈)</td>
<td>두산・상 p.67</td>
<td></td>
</tr>
<tr>
<td>풍상 32(황동규)</td>
<td>전쟁・상 p.52</td>
<td></td>
</tr>
<tr>
<td>괴아노(정봉건)</td>
<td>중앙・상 p.53 두산・상 p.318</td>
<td></td>
</tr>
<tr>
<td>하급반 교과서(김명수)</td>
<td>금성・상 p.134</td>
<td></td>
</tr>
<tr>
<td>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김남주)</td>
<td>민중・하 p.39</td>
<td></td>
</tr>
<tr>
<td>홀로서기(서정윤)</td>
<td>민중・하 p.33</td>
<td></td>
</tr>
<tr>
<td>화가 몽크와 함께(이승하)</td>
<td>블랙・하 p.41</td>
<td></td>
</tr>
<tr>
<td>화살(고은)</td>
<td>블랙・하 p.324</td>
<td></td>
</tr>
<tr>
<td>황진이 벌국(홍성환)</td>
<td>중앙・상 p.100</td>
<td></td>
</tr>
<tr>
<td>혼들리며 피는 꽃(도종환)</td>
<td>교학・상 p.121</td>
<td></td>
</tr>
<tr>
<td>홍부 부부상(박재삼)</td>
<td>블랙・하 p.208 천재・하 p.362</td>
<td></td>
</tr>
</tbody>
</table>